

1. 알람: 이 회보를 PDF file 로 download 하시려면, "각지회안내" 속에 있고,
2. (지회명은) "연합회" 이고, (한글성명은) "2011_Boston" 이며, "한글성명" 을 Click하시면 영문/한글순으로 나오면,
3. "2011_Boston" 을 Click하시면 PDF file이 있습니다.
4. "각지회안내" 는 Log-in 하셔야 들어가 보실수 있습니다. "각지회안내" 아래쪽 한가운데의 "한글성명" 을 Click 하시면 모든 이름이 영문/한글 Alphabet 순으로 되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11 BOSTON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회장 조수현 · 수학 76



EWAH BOSTON 2011

October 27 - 30, 2011

The Westin Waltham Boston Hotel



EWhA 2011

북미주지회연합회 회보 총장님 축하

“세계를 향한 열정, 이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선욱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이화동창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회보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해 11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하여 북미주 전역의 30여 지회에서 오신 동창 여러분과 가졌던 만남이 생각납니다. 먼 타국에 뿌리를 내리고 사시면서도 한결같은 이화사랑으로 모교를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동창 여러분의 사랑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로 이화는 창립 1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스크랜튼 선생님께서 뿌리신 작은 씨앗이 이제 18만 동창을 지닌 이화라는 거목으로 성장하였고, 수많은 이화의 동문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화 정신을 기억하며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25주년을 맞이한 이화 공동체는 다시금 창립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인간화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이화가 이제는 한국이라는 경계를 넘어 세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전 지구적 여성의 인간화와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이화의 정신을 구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화는 “세계를 향한 열정, 이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계 최대의 여자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창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 이화는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전공분야에서 최고의 교육수준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 각 단과대학들은 여러 인증기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획득하였고, 평가기관들에 의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수준의 연구 중심대학 육성사업과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각종 대회에서 수상과 합격소식을 전해오고 있고, 교수님들의 교외연구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교의 발전은 모든 이화인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일구어내고 있는 소중한 성취이고 자산입니다.

저는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18만 이화가족과의 소통을 강조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매 학기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동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동문들을 만나 학교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들으면서 학교운영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동창들과의 소통을 통해 18만 이화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Virtual Ewha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해외에 계신 동창들이 보다 쉽게 학교와 소통하실 수 있고 이화 학문공동체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총장으로서 동창 여러분이 언제나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모교 이화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화의 연구,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지닌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여러분의 후배 이화인들이 창조적 지성과 인격적 감성을 갖춘 실천하는 지식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종합적인 캠퍼스 이노베이션에 착수하여 1930년에 조성된 신촌 캠퍼스 공간을 미래지향적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이화의 비전과 그에 따른 발전계획은 모든 이화인들이 함께해 주실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과 격려가 이화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30여지회의 돈독한 관계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선한 가치를 세상에 펼치며,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화의 진선미 정신을 여러분이 계신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심으로써 이화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창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0월 보스턴에서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2011년 4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선욱

“사랑과 화합, 열정의 동창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조종남

존경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 제 16대 총동창회장으로 선출된 조종남입니다. 제가 의대창립 66년 역사상 의대동문 최초로 총동창회장을 맡게 되어 기쁘긴 하지만 한편,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에 동창회장으로 선임된 것은 그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오랫동안 YWCA에서 봉사를 해 온 경력 때문이었다고 생각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제 16대 총동창회는 “사랑과 화합, 열정의 동창회”란 기치를 앞세우고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18만 동문들의 삶의 열정과 창조적인 에너지가 총동창회를 통해 하나로 모여 새로운 문화로서 창출될 수 있도록 동문들의 총연과 지도편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한마음 이화가족은 한 뜻으로 섬긴다’는 구호 아래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금년에는 보스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빨리 정다운 모습들을 뵙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오해와 갈등을 불식하여 북미주지회 전체가 하나된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행사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동안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의료보험이사로부터 보험위원장, 부회장, 수석 부회장 등을 빠짐없이 거친 후 회장이 되려고 하였지만 남자 후배 의사에게 회장직을 양보할 수 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회장이 될 줄 알았고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던 저였기에 정말로 충격이 컸습니다. 그 후 저는 여러 일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반성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가장 낮은 위치에서 겸손한 자세로 임할 때 세우신다더니 이번에 저에게 동창회장직이라는 큰 열매와 의무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를 비방하고 공격했던 분들이 지금은 저에게 축하의 말씀을 건네시니 제가 편안해졌습니다. 의로움 속에서 묵묵히 참고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때를 생각하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우리 이화는 뿌리가 하나인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입니다. 그 뿌리가 미국까지 뻗어서 또 가지를 치고 서쪽과 동쪽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성경말씀처럼 말입니다. 자매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흠을 말하기도 하지만 한 자매가 위급할 때 다른 자매는 반드시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올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들 마음에서 변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진리는 우리 모두 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즉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바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데는 예리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소홀할 수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많이 칭찬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기쁘게 동창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동안 북미지회연합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조 수현 회장을 비롯하여 각 지회 회장님, 북미주에 계신 많은 동창들의 지극한 모교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보스턴에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2011년 4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조종남

2011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3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인사말

“Ewha Tradition Shines On~ 계속 빛나는 이화의 전통”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조수현(수학 76)

(시편 133: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룻기 1:16) 룻이 이르되- 중략-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안녕하세요? 2011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를 책임 맡은 보스턴 지회의 조수현입니다. 위의 성경 구절들은 제가 연합 회장으로써 함께 나누고 싶은 성구입니다. 연합하여 함께 하는 것이 좋고 이화 선구자들의 뒤를 따르는 것이 좋은 까닭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성구는 학창시절 C관 계단 벽에 있던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합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입니다. 연합회는 1976년부터 각 지회의 동창들이 국제재단 회의를 호스트하면서 지회활동을 한국의 모교와 연계해 왔습니다. 모교의 총동창회 산하에 속한 지회들로서 평소에는 각 지역에서 지회별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일년에 한번 다같이 모이는 총회를 통해 각 지역의 소식을 나누며 교제를 합니다. 이 때, 모교의 총장님과 총동창회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여 말 그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을 만끽합니다. 지난 2010 LA에서는 김선옥 신임 총장님과 김순영 전 총동창회장님과 함께 화기애애한 총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1년 10월에는 보스턴에서 총장님과 신임 조종남 총동창회장님을 모시고 여러지회의 동창들과 함께 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낮에는 총회와 플리머스 및 보스턴 관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총장님과의 만찬(금요일), 대만찬(토요일)을 기획하였으며 하버드 법대 석지영 교수를 초빙 강사로 모셨습니다. 2011년 총회 구호는 ‘ Ewha Tradition Shines On~계속 빛나는 이화의 전통’ 입니다. 이 자리를 빛낼 분들은 바로 동문 여러분이십니다. 막 유학을 오신 동문님들, 활발한 현역의 동문님들, 은퇴하시고 노후를 즐기시는 동문님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보스턴에서 살아있는 미국의 역사의 현장과 하버드와 MIT가 있는 교육의 요람을 돌아 보시고 단풍진 강가를 함께 걷지요. 인생은 짧고 볼곳은 많다! 보스턴에 오셔서 영국풍 거리를 느껴보시고 인상은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한 양키들도 접하시고, 하버드 스퀘어에서 학생들도 만나 보세요. 일년에 한번 모이는 총회가 보고 싶은 얼굴들이기에 의미있고 기다려지는 것이겠지요. 이번 지회연합회가 진정으로 북미주에 흩어진 동창들의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서 만납시다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오명애(장식미술 74)

안녕하세요, 북미주지회연합회 이화가족 여러분, 지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10 지회연합회 총회가 L A 모나멘처 호텔에서 서 김선옥 총장님, 김순영 총동창회장님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질 수 있었던 것은 북미주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덕분이었

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달이 훌쩍 지나 아름다운 각가지 색깔의 장미가 만발하고 푸르름이 싱그러운 6월, 여러 동문님들께 안부를 드립니다.

이번 2011 지회연합회 총회가 가을의 단풍이 그윽하고, 역사와 전통이 깃든 도시 보스턴에서 열립니다. 조수현 회장님 및 보스턴 동문들께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화여대 개교 125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에 북미주 지회연합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북미주 이화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미주 이화동문 여러분들의 가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10월 보스턴에서 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년도별 연례회의 주최지회

주최 지회	주최지회 회장	주최 지회	주최지회 회장
1976 워싱턴 디시 지회	김정자 (62 가정)	1994 대뉴욕 지회	임병대 (60 교섭)
1977 대뉴욕 지회	이해경 (50 피아노)	1995 워싱턴 디시 지회	오성미 (64 영문)
1978 시카고 지회	전신애 (65 영문)	1996 보스턴 지회	김경애 (70 의학)
1979 대뉴욕 지회	장한희 (53 기독교)	1997 토론토 지회	정인영 (68 물리)
1980 디트로이트 지회	김신형 (49 가정)	1998 아틀란타 지회	김은숙 (68 사회)
1981 남가주 지회	김성자 (62 교육)	1999 시카고 지회	윤미혜 (64 사사)
1982 시카고 지회	최순자 (66 의학)	2000 남가주 지회	김대훈 (66 화학)
1983 대뉴욕 지회	조 연 (61 약학)	2001 디트로이트 지회	차승순 (70 기약)
1984 필라델피아 지회	장창희 (62 가정)	2002 올란도 지회	하명숙 (66 체육)
1985 워싱턴 디시 지회	한순정 (59 서양화)	2003 북가주 지회	강영자 (64 기독교)
1986 북가주 지회	이명희 (62 교육)	2004 휴스턴 지회	김성혜 (72 식영)
1987 대뉴욕 지회	이부자 (60 사사)	2005 클리블랜드 지회	이선희 (70 교섭)
1988 토론토 지회	여정자 (67 기독교)	2006 토론토 지회	강선희 (67 교육)
1989 시카고 지회	최경혜 (60 법학)	2007 대뉴욕 지회	최성남 (70 약학)
1990 남가주 지회	이희성 (59 영문)	2008 시애틀 지회	이정형 (63 약학)
1991 북가주 지회	최충자 (62 사회)	2009 덴버 지회	이미옥 (68 국문)
1992 디트로이트 지회	김정숙 (62 의학)	2010 남가주 지회	오명애 (74 장미)
1993 휴스턴 지회	임애자 (65 사학)	2011 보스턴 지회	조수현 (76 수학)

2002년 - Orlando

하명숙 1966 체육



2003년 - N Calif

강영자 1964 기독교



2004년 - Houston

김성혜 1972 식품영양



2005년 - Cleveland

이선희 1970 교육심리



2006년 - Toronto

강선희 1967 교육



2007년 - NY

최성남 1970 약학



2008년 - Seattle

이정형 1963 약학



2009년 - Denver

이미옥 1968 국문



2010년 - S Calif

오명애 1974 장식미술





EWHA 2011

동창의 날 행사

이화창립 125주년 대음악회 및 기념식과 동창의 날 행사



황병기 명예교수의 가야금 연주

본교는 창립 125주년을 맞아 5월 30일 ECC Valley에서 대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에는 재학생, 졸업생 및 이규도 교수(전 성악과), 황병기 교수(전 한국음악과) 등이 참가했다.

KBS 박은영 아나운서(무용 05)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 김선옥 총장을 비롯 정의숙, 윤후정, 장상, 신인령 전 이사장 및 총장과 조종남 총동창회장이 함께했다. 또한 교직원, 졸업생, 재학생 등 총 2500명이 참석해 장내를 가득 메웠다.



창립기념 전야제 격인 이날 공연은 125주년을 상징하기 위해 125명으로 구성된 음악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관현악단, 125명으로 구성된 합창단, 그리고 125명으로 구성된 국악 관현악단이 '에스러움과 새로움-Old & New'를 주제로 진행했다.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 명예교수는 17현 가야금과 오케스트라와 함께 1991년 작곡한 곡 '새 봄'을 연주했다. 이 외에도 서양음악과 한국음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동·서양 음악의 만남, 이화합창단의 'Climb Every Mountain', '주님' 등으로 구성되었다. 공연에 쓰인 대부분의 곡들은 본교 125년 역사의 웅장함과 본교의 새로운 미래를 표현하는 곡으로 선정됐다.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하는 연주와 합창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을, 캠퍼스의 전통적인 옛 건물과 새로운 건축구조물인 ECC와의 조화를 통한 '소통과 융합'을 연주하고 노래했다. 소프라노 이규도 명예교수는 동심초(김성태), Pace, pace mio Dio(G. Verdi)를 불러 이화 창립을 축하했다.

125명씩 3팀을 이루어 총계 무대에 오르도록 한 이번 공연은 2008년 문을 연 ECC Valley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공연으로 행사 참석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ECC Valley에서 열린 대음악회

이화여대 창립 125주년 기념 행사는 31일 대강당에서 10시 창립 기념식, 12시 총장 초청 오찬, 2시 동창의 날 기념식, 졸업 30, 50주년 동창 재상봉, 올해의 이화인 추대 및 축하 공연과 합창제의 순서로 이어졌다. 제13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는 정의숙 전 이화학당 이사장(81)과 이어령 명예석좌교수(77)를 선정하여 이화인상을 수여했다. 이날 오찬식에서 정의숙 전 총장은 이화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화의 힘이었다고 고백했다. 합창제에는 자연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대전, 대구 팀이 참가했다.

이화, 다시 그대의 본향으로



보스턴 지회 고문
박영복(영문 61)

요즘 나의 생활은 평안하고 걱정 없는 순풍의 항해여서, 누구나 열망하는 노후의 꿈이 실현된 단계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면서도, 내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존재의 필요성이 없는 이 큰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음을 느낀다.

50년 전 이화동산을 선택한 이유에 고 김활란총장님의 영향이 컸고, 이곳 보스턴에서 산 48년은, 공부, 결혼, 거의 연년생으로 출산된 사남매의 엄마와 부인, 28년간 같은 분야에서 직장생활 등 매우 바쁘고 꼭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위치에서 살았다. 이제는 자손들이 다 장성하여 분가해 나가고, 또한 7명의 손주까지 가진 다복한 할머니가 되었다.

아직은 손주들이 어려 함께 놀아만 주고 장난감 사다주면 만족해 하니 또 행복하고, 네 자손들 가정 모두 화목하며, 지난해 먼저 떠나신 남편 간호도 필요 없으니, 홀로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지난 세월 인도하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린다. ‘내게 남은 생애를 어떠한 꿈으로 후회없는 노후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는 나의 큰 과제이다.

그 과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옛 이화동산에서 꿈꾸었던 옛 기억들을 다시 더듬어 보며, 그 당시의 꿈이 실현된 것,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 등을 생각하니 막연했던 과제가 어떤 방향을 느끼도록 도움이 된다. 졸업 50년 후에도, 감수성과 꿈이 풍부하도록 도와 준 옛 이화 동산이 있음을 감사하며, 미국에서 많은 캠퍼스를 보았으나 내 기억속의 그 당시 이화 교정의 아름다움과는 비교가 안된다.

1960년대부터 보스턴에서의 동창의 모임은 자연히 한인교회에서 이루어졌다. 거의 모든 동창들이 애들과 남편을 도우면서 분주한 생활을 할 때였지만, 교회 예배 후에 고국에서 고 김옥길 총장님, 또는 교수님들이 보스턴을 방문하시면 동창들과 함께 캠브리지의 지금 하이얏 호텔 자리에 있었던 조이스첸 중국 레스토랑에서 모였다.

고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향수에 잠길 때 무척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 동창회를 조직하라는 권고를 들었고 70년대에 동창회가 시작되었다가 80년대에는 거의 모이지 못했고 다시 90년 초에 활성화되어 격년으로 회장과 이사를 뽑고, 이사를 15명 이상 두도록 회칙을 정하여 제정을 확보하였다.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든든한 동창회로 자리 잡고 1996년도에 이화 국제재단 이사회와 미주 동창총회를 이곳 보스턴에서 호스트 할 수 있었다. 다시 2011년에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주최할 수 있을만큼 성장했음에 기쁨이 넘친다.

깊은 신앙과 헌신으로 시작된 이화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많은 열정의 후원자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발전해 왔고, 이젠 많은 동창들도 전 세계로 뿌리를 내려가며 가정과 사회에 깊은 영향과 모범이 되고 있음을 볼 때, 이화 동창임을 다시 감사 드리며 “이화” 그대 영원 하시길 기원 드린다.



2011년 북미주지회연합회에서 총장님과 함께

2011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7



EWHA 2011

수필

후배들, 그 밝은 얼굴과 미래를 기대하며

 김명자(사회62)
 동북 PA지회


김명자

라, 장학기금에 마음은 있지만 아직 실천은 못하고 있는 동창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많은 후배들에게 배움의 길을 장려하는 기회로 연결된다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나는 이화에서 기독교적 정신과 지성적인 삶, 헌신의 자세를 배웠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것을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사회에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이화는 내게 늘 큰 그늘이 되어 주었다. 나는 모교에 내가 가진 작은 것이나마 되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올해로 100세가 되신 임길재 박사님(뉴욕 거주)은 오직 이화 사랑으로 푹푹 뭉치신 분이요, 늘 후배들에게 모교를 도우라고 권하는 분이시다. 너무 이화만 강조하시고 강권하다시피 하셔서 후배들의 원성을 받기도 하지만, 이 분이 살아온 삶을 보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모교 이화를 위한 것, 기독교적 헌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임 박사님의 권유에 따라 나는 이화국제재단에 이런 저런 기금을 위해 기부를 하곤 하였다.

몇 년 전 어느 날, 기금 관련하여 재단의 송지에 사무국장장과 통화를 하는 중 사무국장장이 그러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이런 저런 기금으로 자주 기부하시는데, 차라리 선생님 성함으로 장학기금을 세워 후배들에게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방식을 택하시는 것이 어때세요? 자녀분들도 어머니의 모교와 베푸시는 마음에 대해 알게 되고 기뻐하실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도 좋은 생각 같았다. 원금과 원금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을 쌓다가, 원금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으로 한 학기 장학금이 나오는 정도가 되면,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으로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감사 편지를 받아 우리 가족이 돌려 볼 수도 있단니,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의 모교도 알리고, 엄마가 후배들과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모범도 보이니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남편과 상의를 하였다. 남편도 좋은 일이라고 흔쾌히 찬성을 하여 남편과 내 이름을 넣어 노창섭/김명자 장학기금을 세워서 사

회학과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처음에는 적은 액수로 시작하여 언제 늘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제법 많이 모였다. 그게 언제 늘어 하면서 아무 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도 아무 것도 없지만, 적더라도 일단 시작해보자 하고 해 보니 어느새 몇 만불이 되었다. 나보다 많은 기금으로 장학금을 주면서 모교와 후배를 돕는 동창들도 많이 있다. 심지어, 이화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이화에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않은 미국인들도 장학기금을 세우고 이화를 돕는다. 어머니의 모교라고 이화를 후원하는 동창의 자녀들도 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그러나 내 한 몸에 걸치는 비싼 가방이나 보석 보다는 후배들을 돕는 일이 더 기쁘고 오래도록 행복한 일이라고 믿는다. 딸과 외손자와 함께 하고 싶어 보스턴에 많이 와있으나 나는 Northeast 펜실마니아에 산다. 수년전에 Smith College에 친구 조카의 졸업식을 보러 갔다가 여자 명문대학의 면모를 보면서 무엇보다 졸업생들의 헌신적인 물심양면의 뒷받침에 감탄하였다. 그후에 우리 NE PA 13명의 동창과 남편들이 함께 만나서 이대 졸업생과 결혼한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내자고 해서 만불 이상을 모아서 재단을 통해 모교에 보냈었다.

이제는 한국도 잘 살고 이화대학도 부자가 되었으니, 오히려 모교가 우리 동창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버드 같은 부자 대학을 돕는 기금들은 대개 동창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부자나라 미국의 부자인 명문대학들이 그 이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로 그런 끊임없는 후원 때문이라. 이화대학은 좋은 대학이었고, 좋은 대학이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대학이 되려면 우리들의 후원이 절대 필요하다. 젊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화의 여학생들은 빛이 나기 때문에 늘 화려해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학비가 없어 찢쩍대고, 부모님 대신 가장 노릇을 하면서도 학업을 놓지 않는 후배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모이면, 많은 후배들이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다. 우리가 베풀면, 그 아이들은 말할 것이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이화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선배들이 있어 이화가 더 자랑스럽다고. 한국의 총동창회 산하의 전세계 지회에서 동창들의 많은 후원이 있어서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을 금할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동창인들의 적극적인 제정의 뒷받침이 확대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 2011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보스턴에서 만나기를, 연합회의 성공적인 총회를 위해 기원해본다.

8 2011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3월의 어느 멋진 날

이명화(영문 88)
워싱턴 D.C.지회

메릴랜드락빌 세계로교회.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의 집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다. 고등학생 아들이 학우들과 준비하는 과학프로젝트 모임에 데려다 줘야 하는 일을 남편이 맡아준다 했다.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 근로자인 나, 오늘은 완전 ‘자유부인’ 이다.

대충 샌드위치 만들어 먹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사서 우아하게 오후 1시에 도착한 합창단 모임. 햇살이 쏟아지는 교회 1층 문을 열고 들어선 방에는 6명의 배꽃녀들이 딸기, 블루베리, 고구마, 커피를 즐기며 담소하고 있었다. (괜히 점심 먹고 왔네.)

“아유,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후배가 오니 분위기 사네!” (40대 중반 넘어서는 내가 ‘젊다’ 고? 허허. 거 기분 나쁘지 않네? 어디서 영계 소리 들을꼬?)

“아. 네. 감사합니다.” 꾸뻑.

합창단 모임을 이끄시는 문남희 선배가 자기소개를 하신다. 파란색 스웨터에 황금색 목걸이를 두른 멋쟁이다. 성악과 출신으로 20년 이상 교회에서 찬양과 지휘 사역을 해오셨단다. (예고 경력이 너무 거룩하네?)

“모두들 일어서세요. 노래는 긴장하면 안 돼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시고, 어깨에 힘을 빼고 내려 보세요. 자, 그럼 발성법부터 시작합니다!”

기우였다. 너무 거룩할 거라는 우려는.

“자! 자! 배에 힘주시면 안돼요. 잘못하면 엉뚱하게 뒤에서 소리가 납니다. 화장실 갈 수도 있어요. 대신 가슴 부분을 크게 확장시키셔야 해요. 가슴을 쭉그리면 안됩니다. 있는 대로 앞으로 활짝 펴세요!”

(예고, 안 그래도 앞가슴이 절벽인데 쭉 있는 가슴띠를 하고 올 것을.. 쫄쫄)

“아랫턱을 내리세요, 뺨에 손을 갖다 대고 모아진 뺨을 가운데로 모으세요. 그 입모양이 ‘오 (O)’ 형이 되면 소리가 더 깊게 나오거든요. 입을 다물고 허밍 시작! 윗니와 아랫니를 붙이지 말고 허밍 하다 보면 코 밑이 떨립니다.”

“선배님, 제 경우엔 얼굴 살이 많아서인지 코 밑 진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뒤에 있던 대선배님도 “me, too.” 까르르.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모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클래식도 좋고, 찬양 곡도 좋고, 가요, 팝송도 좋습니다. 노래방에서 잘 부르고 싶은 욕심 있으시죠?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이 앞에 드럼도 있는데요, 배우고 싶은 분 있으면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뭣. 드럼? “선배님, 저 배우고 싶어요!!!” 내 아이가 피아노다, 기타다, 트럼본이다, 트럼펫이다 음악 한다가에 레슨장소에 라이드를 준 게 몇 년이었던가. 일찌감치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 상고시대 조선족을 가리켜,

“노래 부르기와 춤추기를 즐겨한다” 하지 않았던가.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기운 없어 못 노나니. 그래,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유연담 선배가 막간을 이용해 라인댄스를 선보이셨다. 단정한 양장을 하고 오셨지만, 야시한 옷만 입으면 이건 춤추는 마타하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선배님, 혹시 무용과 나오셨어요?” “아니! 나. 정치외교학과 졸업했어!” “저 나이가 어떻게...” “나? 70대야!” (앗, 늙어서도 놀 수 있구나!!) 그래, 저 선배도 정한 한국인이다!!

이어 문 선배가 고른 첫 곡은 노사연 씨의 ‘만남.’ (와. 이것 괜찮네? 거룩한 ‘아베 마리아’ 부를까 봐 걱정했는데) 악보대로 하니 음이 너무 낮았다.

한 옥타브 올려서 부르는데, 가르쳐주신 발성법대로 모두들 목청을 높인다.

문 선배, 이 노래는 처지게 부르면 안 된다며, 피아노의 자에서 벌떡 일어서신다.

카리스마를 다해 “밝게, 다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잊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말할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영계라고 불러주셨지만 나를 포함해 모두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에 나오는 한 구절처럼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님” 같이 생긴 여인들 아닌가?

다정다감한 이영주 선배, 흰칠하게 키 큰 정남예 선배, 시원시원한 황정아 선배, 다소곳한 이순자 선배.

모두들 오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며 우리 7명은 그렇게 “사랑해” 로 모임을 마쳤다. 이화 선배님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영화배우 안성기씨와 함께

2011 총동창회 복미주 지회연합회 9

아름다운 그녀!

김연아(도서관 91)
보스턴지회



김연아

‘지선아 사랑해’란 책을 읽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흐른다. 가슴이 우는 까닭이다. 나도 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을... 그녀가 원하는 것은 눈물 대신 응원이고, 아픔 대신 감동이고, 특별한 호기심 대신 친근한 눈길일테니까. 2000년 7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에 재학중이던 그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어디선가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렸고 사고가 나겠다는 예감을 한 순간, 만취한 운전자가 신호 대기중이던 앞 차를 들이받는다. 그녀와 오빠가 탄 차였다. 연료통에서 불길의 솟고 기절한 그녀의 얼굴과 몸에도 불이 붙는다. 그녀 몸에 붙은 불을 잡느라 오빠의 팔에 불길의 옮겨간다. 곧 병원에 실려가지만, 소생될 기미가 없다는 의사의 판단때문에 그녀는 죽음을 향한 마지막 문턱을 넘을 뻔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녀 몸에서 흘러나오는 한줄기 생명의 기운을 감지했다. 이후로 길고 고통스러운 치료와 수술이 반복된다. 하지만 통원치료와 거듭된 수술, 재활치료를 반복해야 했던 시간을 그녀는 하나님 덕에 건디어 낸다.

그녀의 사고를 생생히 지켜보아야했던 오빠, 그저 살아서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는 부모님, 사랑과 평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보물로 간직하며 그녀는 지금 씩씩하고 용감하게 제 2의 인생을 살아간다.

2010년 YWCA로부터 젊은지도자상을 받은 그녀는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뜻을 두고 UCLA에서 사회 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 나온만큼 그늘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부에 닿는 생생한 빛을 전해주는 희망의 메신저가 된 그녀는 푸르메재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풀코스 마라톤 완주를 해내기도 한다. 환자중심의 재활병원건립을 목표로 하는 푸르메재단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또 한국을 비롯,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져 강연가로서 타인과 자신을 동시에 치료한다. 그녀는 밤 한 그릇이 주는 작은 위안에 감사할 줄 아는 큰 그릇이며 진정한 부자이기도 하다.

‘땅만 보고 걸어야 했던 내가 등을 곳곳이 펴고 사람들과 눈 마주치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개를 들면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지선아 사랑해’란 책을 읽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흐른다. 가슴이 우는 까닭이다. 나도 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을... 그녀가 원하는 것은 눈물 대신 응원이고, 아픔 대신

잘 수 있고, 말할 때 침을 흘리지도 않습니다. 10년 전 사고 직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사하며 사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부자가 가지는 풍요란 생각을 한다. 그녀도 부자지만 어쩌면 나는 더 부자일 지 모른다는 위안을 주는 것, 이것은 그녀의 힘이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값진 체험의 진리를 곱씹으며 건강한 마음만큼 빛나는 건 세상에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진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아 주리라... 나는 그렇게 약속한다.

당신과의 만남

당신 앞에 그렇게 다칠세라 아끼던 내가
무너짐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게를 경험하면서 다시
가벼움으로 공중을 나는 나를 봅니다.

너무나도 진지한 당신의 모습에 나의 치기가
힘을 쓰지 못함을 봅니다.

당신이 누구이길래 나의 전부를 주고도
छ지 않은 나를 봅니다.

크기도 알 수 없고 깊이도 알 수 없는 그 곳으로
인도하신 당신

당신이 묻어진 가슴 알알이 열매가
익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구미(기독교 65)
보스턴지회



감사의 마음

최숙자(도서관 69)
워싱턴D.C.지회



최숙자

3월이 되면 지금도 마음이 설레인다.

긴 겨울을 지내고 새싹이 우리 주위를 활활하게 하는 봄에, 내 생일이 있어서 즐겁다. 무남독녀인 딸내미의 생일을 정성껏 차려 주시던 어머니 사랑의 추억. 내 생일 다음날인 이승만 대통령 생신날에는 대통령 찬가에 맞춰 줄넘기를 하던 추억. 겨우내 입었던 두꺼운 코트를 벗고 예쁘고 가벼운 연두색 코트를 입고 봄바람 맞으며 건넌 명동거리의 추억들로 가득 해서 즐겁다.

미국에 온 지도, 결혼한 지도 40년이 지나, 지금은 나이 많은 할머니가 되었지만 3월은 여전히 내 마음을 설레이게 한다. 어렸을 때 영화를 보고 반했던 Rock Hudson같이 잘 생기고 멋있는 사람만 있는 줄 알고 온 미국땅에서 인종차별도 많이 받아 보았고, 잘 어울리니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결혼한 남편이 내게 많이 낮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도 해 준 40여 년이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힘들 때마다 등을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참사랑과 겸손과 감사함을 알게 해 주셨다.

평생 모시고 살던 어머니는 “I want to go home, 친당에 간다.” 라고 두 나라 언어로 멋지게 말씀하신 후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 친형제가 없는 내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은 물론 친척들과 사돈 등 많은 친지들이 찾아와 위로해 주셔서 슬픈 중에도 너무나 감사했다.

서로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편을 이해하기 어려운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좋은 친구, 좋은 책들을 통해 ‘unconditional love’와 ‘forgiveness’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남편은 얼마 전에 40여 년 전에 주었던 결혼반지보다도 예쁘고 귀한 반지를 사주었는데 나도 여자인지라 그것도 감사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 준 내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며 melting pot의 주인공인 우리 손자, 손녀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서 많은 즐거움을 준다. 특히 2년 전에 Cincinnati에서 우리 동네 가까이로 이사 온 덕에 자주 만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알기 전에는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차곡차곡 채워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도 내 마음은 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 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선배라면 만원 이어 달리기’에

동참하시려면 1년에 \$100을

이 한국재재단으로 보내주세요.

* 세금공제도 받으실 수 있어요.

Checks should be payable to “IFEWU” and mailed to: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Inc.

475 Riverside Drive, Room 1505

New York, NY 10115

ewhafoundation.org





EWHA 2011

여행기

남극 여행기 -보스톤에서 지구의 끝까지

김경애(의학 70)
보스톤 지회



김경애

언제부터인가, 아주 오래 전부터 남극에 꼭 가고 싶었다. 그 곳은 어떤 세상일까 하는 호기심도 있었고, 펭귄들만 사는 동네라니 펭귄도 보고 싶고,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안 산다니 얼마나 평화스러운 곳일까 하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몇년전 가을 어느 날 의학 세미나가 남극 가는 배 안에서 있으니 관심 있는 의사들을 모으자는 안내장이 우리 집 우편함에 들어 있었다.

안내장에는 남극의 얼음 덮힌 산과 푸른 하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양으로 조각된 빙하의 모습과 여러 종류의 많은 펭귄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마침 남편의 60세 생일이 몇 달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환갑 기념으로 남극에 간다는 것이 너무 적당한 이유 같아서 기회를 보아 남편에게 남극에 가자고 제의를 하였다.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그 춥고 먼 곳은 왜 가고 싶어하느냐고 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는 펭귄이 보고 싶으면 보스턴 Aquarium에 얼마든지 있으니 가서 보라고 하면서 한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생전 남극에 가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남편이 없는 사이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두 사람 예약을 해 놓았다. 그리고는 그 먼 곳을 정말 어떻게 가야 할지 은근히 걱정이 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생겼다. 남아메리카 끝에서 배를 타고 이틀이나 가야 한다니, 배 멀미 하는 것도 문제였고.. 드디어 남편이 한국 출장에서 돌아왔다. 남편에게 “당신의 60세 생일 기념으로 우리 남극 간다고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라고 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승락하면서 “남극에 가는 것이 당신의 평생 소원이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같이 한번 가 봅시다” 하여 우리의 남극 여행 준비는 시작이 되었다. 우선 펭귄 사진을 찍을 새 사진기와 비디오 카메라, 스포츠용품 가게에 가서는 제일 두껍고 따뜻한 내복, 털 스웨터, 두꺼운 잠바, 썬글래스, 남극에서 신을 장화와 덧신, 털모자, 목도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털미약...

드디어 12월말에 우리는 보스턴을 떠나 Buenos Aires에 도착하였다. 미국과 세계에서 온 틴에이저부터 휠체어를 탄 90세 할머니등 약 120여명의 여행객들이 호텔에 모여서 서로 인사와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다음날 아침 다시 비행기로 약 3시간 반을 여행하여 세계의 제일 남쪽 끝에 있는 도시 Ushuaia에 도착하였다. 말로만 듣던 Patagonia의 경치가 눈 안에 들어왔다. 최수들을 멀리 보

름이 되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었고, 또 너무나 신선한 공기. 우리는 이틀간 항해할 저 푸른 바다를 보며 점심식사 후 시내 관광을 한 후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 선박에 들어가 짐을 풀고 10일간 항해할 준비를 하였다.

배 안에는 믿음직해 보이는 산타클로스를 꼭 닮은 선장, 우리의 리더이자 Naturalist인 John, 직업 사진사들, 의학 세미나를 위하여 프랑에서 온 의사, Russian Cook, 그리고 Speaker로 초대되어온 컬럼비아대 물리학교수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이렇게 시작된 처음 이틀간의 우리의 항해는 태평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Drake Passage를 건너 남극 반도에 있는 여러 섬들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가도가도 끝이 없는 바다, 가끔은 태평양과 대서양의 바닷물이 서로 충돌하여 배가 바닷물 꼭대기로 올라가고 또 흔들려서 커피 한 모금만 마셔도 토해야 했고, 또 배 안에서는 의학 세미나, 남극에 대한 역사, 지리, 지질, 남극에 사는 동물들 그리고 펭귄의 종류들에 대해 강의가 있었다.

Antartica(남극)는 북극Arctic의 반대의 뜻, 그리스 단어인 Arktos(곰)가 어원이어서 인지 남극에는 곰이 살지 않는다. 1911년 12월 14일에 노르웨이 사람 롤드 아문젠과 그의 일행이 최초



Macaroni 펭귄들

로 남극대륙 중앙에 도착하였으며, 1983년 7월21일에는 지구상에서 역사상 제일 추운 온도, 화씨로 -128.6도가 기록된 곳. 남극 대륙은 전세계의 70%의 Fresh Water를 보유하고 있고 4개의 활화산이 있는 곳, 그리고 세계30개국에서 연구소를 세워 기상학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지구상에는 17종류의 펭귄들이 있는데 그 중 7종류의 펭귄들이 남극에 살고 있으며, Emperor펭귄은 대륙 중앙에, King펭귄은 South Georgia Island에 주로 살고, Gentoo, Adelie, Chinstrap, Rockhopper 그리고 Macaroni 펭귄들은 남극에서 여름을 지나며 짝을 만나 알을 낳고, 새끼들을 키운다고 한다.

첫 날의 긴 항해를 마치고 둘째 날 아침 갑판에 나가보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각된 빙하가 배 양 옆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빙하 위에서는 펭귄들이 집단을 이루어 놀며, 또는 바다에 헤엄쳐 들어가 먹이를 잡고 또 물개들이 드

내가 위하여 생긴 노식대근데 얼마나 아릅다운지. 소 여 더가워 옷장을 두더근 보습이 보였나. 느너여 주더근

12 **2011**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남극섬에 도착, 배에서 신발을 말끔히 씻고, 또 섬을 오
염시키지 않기 위해 덧신까지 신고 조그만 고무배를 타
고 섬에 도착하니, 수 십만 마리의 펭귄들이 해변가부터
산꼭대기까지 자갈로 동그랗게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새
끼들을 키우면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바다에 가서는 음
식을 취해 입에 담고 뒤뚱거리면서 얼음 언덕을 올라가
새끼들을 먹이는 모습이 보였다. 눈이 하얀 Adelie펭귄
은 우리가 옆에 가도 모르는 채 바쁘게 살고 있었고, 멋
진 깃털을 머리에 달고 있는 Macaroni 펭귄은 항상 압
스눔 돌이서만 붙어 다니고 있었다. 우리들은 7일간 여
러 섬들을 돌며 펭귄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강의를 듣
고, 아침에는 멀리 고래들의 웅장한 쇼를 구경하면서 크
루즈를 하였다.

산 중턱에 평화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화색의 구름들, 바
닷가에 누워있다가 배가 고프면 펭귄만을 잡아먹는 표범
물개들, 물고기를 잡아 먹기 위해 물 위를 걸어 다니며
날기도 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딴 새 Petrel, 자기의 새끼
들을 찬 바람에서 막아주느라 바람 따라 방향을 바꾸며
하루 종일 같이 앉아 있는 어미 펭귄들, 섬마다 다른 종
류의 수십만 마리 펭귄들의 합창...

모든 세상의 걱정을 다 잊고 지낸 일 주일, 우리는 하나
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이들간 배멀미를 열심히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망원렌즈가 없어 대신 가까이서 사진을 찍게 해준 펭귄
들에게 감사해 하면서, 일생에 잊지 못할 세상 끝의 구경
을 하고 왔다고, 역시 이화여인은 현명하다며 그 힘든 청
찬을 해 주는 경상도 사투리, 정말 잊지 못할 생일 여행
이었다고 남편은 기뻐하였다.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
와 남은 여행 잊지 못할 남극의 경험을 마음에 담고 하
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조별단과 이화학당 중 일부

정옥희(국문 51)
남가주 지회



정옥희

해가 바뀌었다. 학제가 변경이 되
어 미국처럼 9월이 신학기가 되었
다. 새들원 뜰에도 봄은 왔다 가고
여름이 지나고 겨울도 갔다가 또
왔다. 세월도 부산 앞바다의 파도
처럼 왔다가 또 갔다. 그 사이 6학
년 (고 3) 졸업반 공부는 1951년

6월에 끝맺었다. 그러나 졸업식을 할 계획은 못 되었다.

서울대학교와 연희대학은 영도에 가교사를 세웠다고 들
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 내려온 수많은 대학
교와 중학교도 문을 열었다. 나는 이화학당 국문과를 1지
망으로, 2지망은 사학과를 선택하였다. 필기시험은 없었
다. 면접시험만 보았다.

입학식은 대신동 언덕 위에 일만 개의 조각 판자로 세워
진 강당에서 예배로 시작되었다. 김활란 총장은 그때 공
보처 장관도 겸하고 있었다. 키는 조그마하나 전체적으로
왜소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얼굴은 네모지고 머리는 올백
으로 넘기고 있었다. 하얀 저고리에 검정색 통치마를 입
은 순수한 모습이 어찌 그리 권위가 넘쳐 보일까. 첫 마
디가 “여러분 이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시는
데 외양에 비해서 목소리는 여간 연하지 않았다. 손이 어
찌나 예쁜지 평생 절거지 한 번 안 해본 사람 같았다. 곧
이어 학생과장이라는 분이 학사보고를 했다.

1886년 5월에 미국 북감리교회가 파견한 미세스 매리 스
크랜턴 선교사는 정동에 학당을 새로 마련했으나 학생이
없어 학생을 모집하러 다녀야 했다. 그때 조선은 콜레라
와 장티푸스가 창궐할 때였고 죽어가는 사람은 서대문
밖 세대교에 내다버렸다. 송장 썩는 냄새와 파리 떼가 기
승을 부리는 그곳에 스크랜턴 선교사는 죽은 엄마의 손
에 매달려 있는 한 어린 소녀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아
이를 데리고 와서 씻겨주고 먹이고, 공부시켰다. “조별
단”이라는 그 아이가 이화의 첫 번째 학생이며 제 1회
졸업생이 된다. 우리나라가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는 갑오경
쟁이 1896년에 일어났으니 그보다도 10년이나 앞서 우리
땅에 여학교가 설립된 셈이다.

미세스 스크랜턴 선교사 뒤를 이어 미스 페인, 미스 프
라이, 미스 아펜셀러를 포함하여 73명의 미국 선교사들
이 빈대와 벼룩에 물리며 우리와 같이 먹고 자며 이화학
당을 키워주었다. 그래서 이화에 몸담은 사람은 누구나
이 말을 잊지 않는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고 또 창대하여라.”

이 수필은 미주 동포 문학상을 수상하신 정옥희 동문
의 6.25 체험 수필집 “전란 중에도 꽃이 피었네”에 실
려 있습니다.

백 한 번째 편지

이영강(국문 66)
남가주 지회



이영강

초대장과 함께 편지 한 장이 날아들었다. 발신인의 이름을 보고 옥희는 어리둥절했다. 그는 김동추였다.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사십 년 전에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만 옥십, 회갑이 되면 당신을 꼭 만나리라고 굳게 다짐한 그 맹세입니다. 다가오는 3월 5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초대장을 동봉하오니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줄 안 되는 간단명료한 편지였다. 그리고 편지 끝에는 <10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보니 근 사십년만에 받는 백 한 번째 편지였다. 김동추가 미국에 살고 있던 말인가?

편지를 읽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그냥 몰랐더라면 좋았을 것을, 편지가 배달됐을 때, 하필이면 옥희는 외출 중이었다. 마침, 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이라 옥희는 아침 열 시쯤에 집을 나섰고, 점심을 먹고 집에 들어서는 데 남편이 편지를 내민 것이다. 남편은 그녀에게 바짝 다가서며 빨리 열어보라고 재촉했다. 하늘을 봐도 한점 부끄럼 없는 그녀인지라 “당신이 뜯어 봐요.” 하고는 자신 있게 봉투를 남편에게 건네주었다.

“김동추? 누구야? 오동추가 아니고 김동추야?”

남편은 마구잡이로 봉투 한 귀퉁이를 북 찢었다.

“왜 있잖아요. 옛날 학교 다닐 때 나한테 맨날 편지했다는 사람. 언젠가 내가 얘기한 적 있죠?”

“아! 당신 옛날 애인? 그 편지 백 토오웅....”

편지 백통이라는 뒷말엔 말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실실 웃었지만 마디마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속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는 소리였다. 갑자기 옥희의 연성이 높아졌다.

“옛날 애인은 무슨 옛날 애인이야? 그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지 말아요.”

남편은 몇 줄 안 되는 편지를 요리조리 훑으며 “미친놈, 요새 무슨 회갑잔치야?” 하고 빈정거리다가 미간에 주름을 잡고 뒷말을 내뱉었다. 옥희를 바라보는 눈이 세모꼴이 되며 말꼬리가 확 올라갔다.

“맹세까지 한 걸 보니, 둘이서 죽자사자 했구먼. 그게

노고 피 그 세끼 중기서 편지지 채려니?”

합회” 웹사이트 ewhain-na.com, 자유게시판 <33번>에 올라 있습니다.

- 약력: 미주한국일보 단편소설 입상. 에페도문문학상 소설부문 금상 수상. “SAT II 한국어 교사지침서” 발간. 재미여류작가 5인 동인지 “참 좋다” 발간. 계간 <미주문학> 편집위원장 역임.

랍스터와 손님

김숙영(약학 62)
보스턴 지회

홀려 가는 강물에 내 모든 잡념을 떠내 보내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Newburyport를 좋아한다. 큰 아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어서 여기서 산다고 한다.

우리 집엔 심심치 않게 손님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꼭 모시는 곳이 있다. 바로 Plum Island, Newburyport 근처 Bob Lobster 집이다. Fancy 한 식당은 아니고 랍스터 요리가 일품이다.



Plum Island 는 가도가도 끝이 없는 섬길을 따라 한쪽은 광활한 갯벌이고 한쪽은 망망한 대서양을 보면서 우리는 드라이브를 즐긴다. 이곳은 철새보호 지역이다. 지금처럼 늦가을엔 철새가 와서 카메라맨들은 사진을 찍고 화가들은 캔버스에다 열심히 그림을 그린다. 이곳을 드라이브하면 마음이 후련해 지면서 대자연에 마냥 도취된다. 남편은 이런 곳이 한국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한다. 한국을 떠나온지 40년이 다 되어도 인터넷으로 한국 소식도 보고 한국신문도 읽고 있으나 아직도 한국을 못 잊는다.

돌아 오는 길에 이 식당에 들러 우리는 랍스터를 먹는다. 주인이 직접 잡아 온 랍스터 중에 내가 직접 살아 움직이는 신선하고 알찬 암놈으로 골라 오더하면 그 큰 랍스터가 빨갭게 먹음직하게 익어서 나오면 모두들 놀란다. 앞데기를 두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올라 가는 것 상관하지 않고 잘들 잡수신다. 그러면 대접하는 우리는 텅달

중고 때, 그 세끼 한식이 한식일 뿐아니

이 단편소설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

14 2011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2011년- Boston총회&uid=24

가 안의 내로 보았더니, 여기에 버티고서 바깥바깥의 심
자튀김도 더할 나위 없이 맛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만들어 주는 칵테일 한잔 마시면 온 세상이 다 내것 같

은 기분이 든다. 손님들은 보스턴 심포니와 미술관, 케네디 도서관 등에 대해선 말이 없어도 이 랍스터에 대해서는 꼭 인사를 해 온다. 나는 그래서 이 서민적인 식당을 좋아한다. 물론 아들이 알려 주었다. 추억을 많이 만들어준 이 곳에 고마움이 있다.

우리 내외는 야구게임 보는 것을 아주 좋아 한다. 무덤고 지루한 여름도 매일 경기 중계해 주는 야구 덕택에 무사히 지냈다. 보스턴의 유명한 레드삭스도 응원하게 된다. 보스턴 셀틱스 농구 경기를 보여 준다고 데리고 가준다. 항상 우리를 위해 배려해 주는 아들 내외가 그리워 고맙다.

노후를 잘 지내고 있으니 우리는 분명히 축복 받은 사람들이다.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오늘도 나는 다음 우리집 손님은 누구일까? 하고 기다려 진다.

술라르 청과시장 소묘(素描)

정홍순(성악 62)
센루이스 지회



정홍순

나의 친구 K는 쇼핑이 재미없다. 어쩌다가 함께 백화점에 들리면 싫어하는 눈치 감추지 못한다. 밑살 스러워 밖에 나가 기다리게 하면 발잠 설친 노숙자처럼 벤치에 앉아 잠이 들어있다. 특히 성탄절 쇼핑 때 징글벨이 울리면 그는 짐짓 소음공해의 피해자인체 고충을 호소한다.

그러나 초가를 토요일 오후가 되면 그는 쇼핑가는 어린 이처럼 아연 생기가 난다. 단골가게의 “사과박사”를 만나러 청과시장 술라르에 가는 것이 신나는 것이다. 그는 거기서 조나산 이라는 사과를 산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사과는 한국에서 먹던 홍옥과 맛이 거의 같다. 나이가 들수록 어린시절 고향 맛이 그리운 것이다.

미국이 독립하기 3년전 1773년에 열린 이 시장은 우리 고장의 명물이다. 강변 가까운 곳에 자리잡은 것은 수운 교통의 편리 때문이다. 그 스케일과 재미에 있어 서울의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에 비해 장난감 수준이지만 값싼 채소와 과일로 넘쳐나, 날씨 좋은 주말에는 장꾼이 꼬이는 편이다.

살아있는 오리 거위 칠면조 토끼가 어린이들에게 인기다. 열소젓과 꿀로 만든 비누, 네팔에서 온 방한도, 싸구려 장신구, 정체불명의 향수와 화장품. 백화점이나 슈퍼에서 볼 수 없는 요상한 물건으로 가득하다.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는 K는 거무튀튀한 너구리고기가 신기해서 그 요리법을 배우느라 열심이다. 감을 먹는 습관이 없는지 홍시를 상한 감으로 알고 엄청 싸게 준 상인도 있었다.

K가 이상한 물건에 정신 팔 때 나는 사람구경을 즐긴다. 서민고객의 태반이 고향의 시장이 그리운 새 이민들임을 알수 있다. 특히 동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민이 많다. 어느날 강추위로 모두가 뽀뽀 얼어 붙을 때, 키가 크고 체격이 당당한 젊은 여인이 허벅지 맨살이 다 들어나는 여름철 원피스를 입고 늠름하게 활보한다. 살결이 희다못해 연한 핑크색 반투명의 그녀는 바이칼호수의 얼음을 깨트리고 뛰쳐나와 내앞에 나타난 인어를 연상케 했다. 한여름 찜통같은 더위에 온 몸을 검은 천으로 싸매고 얼굴만 내놓은 모슬렘 여성. 나 같으면 5분안에 기진맥진 쓰러질텐데, 오랜만의 나들이가 즐거운듯 눈이 마주치니 정답게 미소짓는다. 검은 눈동자가 깊고 신비롭다. 아마도 나일강 상류의 누비아에서 온 여인이 아닐까 상상했다. 영어를 아는 어린이를 앞세우고 한 무리의 라티노 아낙네가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이 평화롭다.

나의 상상의 날개는 끝없는 사막을 건너가는 카라반을 따라간다. 사마르칸드에서 커피와 차,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가 교환되면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가 연결된다. 몇백년의 시차를 뛰어넘는 백일몽에서 문득 깨어나니 K가 안보인다. 사람 북적거리는 북새통에 다시 갔나보다 두리번거리니, 너의 남편이 저쪽으로 갔다고 누가 등 뒤에서 알려준다. 구성지게 색소폰을 불던 검은 악사다. 벗어놓은 모자에 1불을 놓고 발길을 돌린다. 남녀노소의 한 무리가 보스니아 불고기를 시식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린다. 자신은 먹지않으면서 남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K는 별나게 싱거운 사람이다.

쇼핑센터에서 비극의 주인공인체 연극 펼던 사람이 장터에 와서야 희희낙락하는 것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역시 서민은 서민들과 어울려야 하나보다. 신분상승에 안달하는 소시민을 보고 껄껄 웃는 K가 잠시동안 밟지 않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

임정아(가정관리 77)
남가주 지회



임정아

독립기념일 연휴였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경보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알람이 울렸으니 회사로 가보라는 것이다. 깜짝놀라 늦은 밤 회사에 당도하니 경찰 두 명이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게이트 앞에 서 있다. 혹시 안에 있을 도둑을 경계하느라 경찰이 출을 들고 앞장을 서고 남편이 뒤를 따라가니 이미 유리문은 박살이 나 있다. 캐쉬박스는 열려져 있고 도둑들은 도망한 뒤였다.

모든 물건이 바닥에 내동이쳐져 흩어져 있다. 거스름돈을 위한 손 금고에는 많지 않은 잔돈이 들어 있었기에 큰 손해는 아니었다. 동전을 모아둔 작은 항아리는 통째로 집어갔으나 그도 무겁기만하지 500불 미만의 돈이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경찰의 뒤를 조심스레 따라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내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만의 비밀 장소에 숨겨놓은 돈이 있었는데 그것의 안부가 가장 궁금했다. 그런데 나의 책상 윗서랍이 열려있는게 아닌가? 가슴이 덜컥했다. 그 아래쪽 서랍에 화장도구를 넣어두고 화장품으로 위장(?)을 해둔 허접스레기 밑에 나의 비자금이 있던 탓이다.

이 비자금으로 말할작시면, 공금횡령이라 할 수 있고 뺑뺑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불순한 돈이다. 비속하게 말하면 ‘썩은 돈’인데 원래의 돈주인이 우리 가정이므로 사실 내 돈이나 마찬가지이다. 남편을 속였다는 의미에서 정직하지 못한 돈이라 할 것이다.

남편의 본업인 건축업 말고 부업으로 시작한 비즈니스이다. 작은 돈이 오가는 현금거래 사업이다. 야구연습장 비지니스를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슬비에 옷 적시듯 풍돈을 3년 정도 모은 것으로 매일 세어보고 호탕해하던 오롯한 나만의 돈이다.

얼른 아랫서랍을 열어 돈 주머니를 꺼내니 매일 만져보던 감촉이 그대로 전해온다. “Thank God!” 영어가 절로 나오며 안도하였다. 양주를 담던 펄펄주머니에 나를 위한 현금이라 생각하며 모은 것으로 가끔 친정집에 선물을 보내거나 책을 사보거나 하는 지극히 개인용으로 자유롭게 쓰던 터였다. 휘유~ 안심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묻는다.

“그 자루에 든 게 뭐냐?”

“내 돈이다. 다행히 도둑이 이걸 안 건드렸네~”

“얼마냐?”

“그걸 말해야 하나?”

“분실하지 않은 돈도 얼마라고 나의 레포트에 기록해야 한다.”

난감했다. 몰래 숨겨두었던 돈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남편과 경찰이 보는 앞에서 돈을 세었다. “7천 불(\$7000) 맞는다.” “오우케이” 경찰이 받아적는다. 남편이 한마디 거든다. “자알하는 것이다.” 남편은 풍돈이 목돈이 되어 돌아온 셈이니 내심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탄로난 돈으로 깨진 유리문 갈아 끼우고 유리문에 쇠창살 덧문 달고 사무실과 담주위에 돌아가며 철조망을 치는데 다 썼다. 외양간 수리비로 쓴 셈이다. “거봐 그돈 없었으면 어쩔뻔 했는지. 마누라의 선견지명이 놀랍지 않나?” 는 등 떠들며 민망함을 커버하였지만 너무 아깝고 분하다.

세상에 비밀은 없고 부정은 언제든지 탄로나게 되어있다. 컴퓨터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남편에게 오늘의 매상을 말하면, 다 안다는 듯 “맞게 말한거야?” 하며 재차 물을 때가 있다. 그럴 땐 제 말이 저려 공연히 화를 내는 요즈음이다. 남편은 집안의 소도둑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사는 재미 반감되었다.

시편 23편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토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자려 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대 동창회와의 인연

김영미(사회 85)
라스베가스 지회

10여 년 전 Las Vegas 로 막 이사왔을 무렵, 아는 분으로부터 이대 동창회를 소개 받게 되었다. 한 신문방송학과 출신 선배님이 이 곳에 동창회를 조직하셨고 장성한 두 자녀들이 다른 주에 있는 관계로 선배님 혼자 사시면서 신실한 교회봉사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그 곳에서 동창회 모임을 주관하시며 아주 열심히 이끌어 가신다는 내용이었다.

시카고에 잠깐 살았을 때는 동창회와 무관하게 지냈지만, 웬지 그 선배님을 도와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마침 편리하게도 선배님과는 이웃에 살고 있었다. 이런저런 동기로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동창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지만, 아이가 넷이나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활발한 회원은 되지 못 했었다.

라스베가스의 생활도 익숙해지고 아이들도 좀 더 자라고, 남편이 하는 일도 안정되어 갈 무렵 다시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은퇴하고 이 곳으로 이사온 후 새로이 회장으로서 선출되신 선배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동문들께 e-mail 도 띄우며 예전 보다는 더 열심히, 더 재미를 느끼면서 동창회 일에 관여하였다. 그런데 라스베가스에서 있을 총회 준비를 하는 초기 과정에서 나는 'You never know' 라는 말에 통감하며 내가 어쩌다가 이대를 나와서 이런 수모를 겪나 싶어 차라리 이대 졸업생이 아니었기를 바랐다.

그 해 여름이 되어서 통합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새 총장님도 만나볼 겸 또 LA는 운전할 수 있는 거리가기도 하고... 남편에게는 두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있기를 당부하며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으면 쓰는 사람도 있어야지, 라고 통보한 후 썩하니 차를 몰고 LA 시내로 향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양 두 마리, 토끼, 닭, 소인데 남편을 합쳐서 네 아들이 다 덤벼봐야 호랑이 띠인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다. 호랑이의 간식이나 팝시클 정도 밖에는 안되니... 딸 아이가 모든 면에 좋은 모범을 보여 안심하고 있었는데 양띠인 큰 아들이 사춘기를 겪으며 얼마나 이유 없는 반항을 하던지 좀 힘이 들었지만,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OK 라며 동의를 표해주고, 엄마가 해 준 일들을 고마워 한다.

나의 크고 작은 꿈들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수 있게 해 준 남편에게 고맙고, 성실하게 잘 자라주는 네 아이들에게 고맙고, 이 모든 일들이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LA 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하면서 동창회에 대한 대한 실망과 상심은 사라지고 이대에 대한 애정과 향수가 더 깊어지게 되었고, 선배들에 대한 애정이 다시 싹트게 되었다.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모든 순서를 준비해 준 동문들에게 감사했고, 그들의 사심 없는 순수한 봉사를 느낄 수 있었다.

토요일엔 게티 뮤지엄 관람이 있었는데, 보스턴의 조수현 선배와 함께 아름다운 그림 작품들을 보게 되었다. 그림들 옆에 써 있는 설명들을 긴가 민가 하며 반쯤 읽고 있으면, 조 선배가 읽고 돌아 서서 이 그림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대 라며 벌써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끝마치는 것이다. 아, 나도 Boston 같은 문화와 교육의 도에서 살 걸 그랬다. 어쩌다가 도박과 최악의 교육 환경조건을 가진 Las Vegas에서 살게 되었는지? 하긴 소동과 고모라 같은 도시에 애들이 넷 씩이나 되는 사람이 이사를 간다며 만류했던 지인들의 조언을 뒤로 하고 왔으니 누구를 탓하랴...

어쨌든 올 가을 보스턴에서의 지회연합회 총회는 꼭소리가 날테니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열심히 공부하며 National Merit 장학금의 최종 당선자가 되길 기다리는 둘째 아들이 Harvard나 MIT 에 입학하게 될 지도 모르니, 사전 답사를 할 겸 다가오는 보스턴 총회에도 꼭 참석해야 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은퇴했다라면 같이 갈 수 있을 걸, 했더니 남편이 감동을 했는지 얼른 비행기표 값을 알아봐 주며 적극 후원이다.

딸아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해 여름에는, 딸과 함께 이제는 많이 바뀌었을 이화여대 동산을 다시 가 볼 예정이다. 대학 때 주로 강의를 들었던 학관 앞 뜰의 빨간 사루비아 꽃들은 그 여름에도 피어 있을까?



아들 John 졸업식

팔불출

이정렬(사생 61)
워싱턴D.C.지회

몇달 전에 Boston 의 조수현 회장이 전화를 해서 반갑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누었지요.

조수현 회장하고는 2년 전에 유럽여행을 함께하여 친숙한 사이가 되었어요. 이야기 끝에 Boston에서 보내 온 원고 요청 제목(팔불출)이 재미있다고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나에게 글을 써달라려던 참이었다며 꼭 부탁 한다네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못 말릴 팔불출 한번 되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우리 부모님 이야기부터 하지요. 부모님께서는 감리교 신학대학 동기동창이시고 졸업식날 결혼을 하셔서 슬하에 우리 5 남매(4남1녀)를 두셨지요. 저의 아버님은 개신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과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생명 얻은 몸’ 을 작사하셨고 대전에 있는 목원대학을 설립해서 키우신 이호운 목사님이시지요. 우리 어머니 차경화 장로님은 1955년에 한국감리교회에서 최초로 여자 장로님으로 추대되신 세 분 중 한 분으로 YWCA등 많은 기관에서 일하셨습니다.



8명의 손자손녀

저의 오빠는 New York의 Rockefeller University 에서 아직도 연구실에서 상주하는 biochemist이구요. 오빠는 59년에 도미해서 유학생 때 조봉옥(영문과 62년)과 결혼했어요. 지금도 New York의 Moma(Museum of Modern Art) 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의 올케는 이화 여자대학교 3대 총동창회장을 지내셨고 학생처장으로 1966년까지 일을 하셨던 김정옥 교수님이 어머니이시지요. 김활란 박사님은 김정옥 교수님의 이모님이시지요. 막내 동생이 서울 감신대 종교사회학 교수로 있는 이원규 목사이고, 둘째 동생은 Virginia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지요.

남편이 1965년에 미국 유학 을 때는 작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왔지요. 나 역시 그랬고요. 4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는 대가족이 되었고 아들 손자 며느리사위 다 자기 한몫들을 감당하고 있구요. 눈물 겹도록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Tiger Mom은 아니였지요. 그런데도 삼남매가 잘 자

18 2011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라 주어서 큰 아들과 딸이 Harvard를 졸업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막내는 Yale에 입학했고...큰 아들은 3COM에서 product development/marketing VP를 하다가 요새는 computer application 계통의 제품개발에 종사하고 있고, 딸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 Washington DC 에서 11년째 개업중이고, 사위도 ICU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지요. 둘째 아들은 영문학을 하더니 Washington DC 지역에서 Literary Agent로 활약을 하여 이 지방 3대 Literary Agency Law Firm중에서 한 그룹의 Partner가 되었어요. 한편

으로는 Georgetown University에서 3년째 English Writing course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셨대요.

이번 봄에는 우리집 삼남매 (아들, 딸, 아들)가 Cancun에 빌라를 일주일 빌려놓고 같이 휴가를 가자고 해서 다녀 왔지요. 아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어요. 아들, 딸, 사위,며느리, 사돈내외 등 어른 10명과 손자손녀 8명, 이렇게 총18명 대식구의 화려한 외출이었어요. 그 곳은 바닷가에 면한 Lagoon에 가지각색의 열대어가 항상 있어서 Snorkel을 아주 즐길만 했어요. 낮에는 인근 지역에 있는 Mayan Pyramid도 보러 다니고, 이렇게 귀한 시간 온가족이 함께 지내다 보니 감사한 마음, 이루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희 가정에 내려주신 모든 축복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느 때는 두렵기도 하지요. 15년 전에 Stroke이 와서 나에게 시련이 있었지만 불편한 대로 지금껏 살아있는 것도 무한히 감사한 일이구요. 저의 남편은 작년해 말로 40년동안 원자력 발전 관계 연구를 해오던 회사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는 ‘regular 삼식이’ 가 되었습니다.

팔불출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얼떨결에 간 이민

박혜정(기약 82)
밴쿠버 지회



박혜정

나의 이민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시작되었다. 친구랑 점심식사를 하고 친구가 이주공사에 간다가에 나도 그냥 따라갔었다. 거기에서 캐나다로의 이민을 추천 받았는데 독립이민이라는 것이 있어서 점수만 있으면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때가 2000년. TV에서는 한창 캐나다의 교육과 의료제도에 대해 서로 경쟁하듯 방송을 했다. “마치 캐나다로 이민을 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점수계산을 해 봐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5점 정도가 남는다고 했다. “그럼, 보험 드는 기분으로 서류를 넣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했다.

이주공사 직원한테 “그런데, 이러다 진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라고 했더니 “1,2년은 늦출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래, 나오면 그 때 생각하자.”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신청한지 2달 만에 “NO INTERVIEW!” 이러다 진짜 갈 수도 있겠다 싶어, 캐나다에 답사를 가 보기로 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많이 가 보았어도 캐나다 관광은 보편적이지 않았으므로 가 본 적이 없었다. 도시도 들어 본 것이라고는 밴쿠버, 토론토 뿐. 일단 두 곳이라도 돌아보려고 비행기 표를 샀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또 벌어졌다. 노 인터뷰 후 2달 만에 비자가 나와서, 방문하러던 것이 나의 의지와 상관 없이 랜딩이 되어버렸다. “어쨌, 이런 일이!” 그때 큰 애는 고1. 처음 방문으로 생각했을 때는 큰 애의 비행기 표는 사지도 않았다. 그랬다가 갑자기 비자가 나오는 바람에 서둘러 표를 구해서 같이 왔다. 주위 사람들이 큰애는 지금도 대학가기에 너무 늦은 나이니까 이곳에 남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갑자기 홈스테이를 구해 애를 맡기고 일단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 와서 남편은 캐나다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큰 애와 같이 있으라고 먼저 보내고 만약 큰 애가 잘 적응을 하면 내가 짐을 싸기로 했다. 큰 애의 적응력은 놀라웠다. 큰 애야말로 캐나다에 올 때 배낭에 칫솔하나 넣고 온 애인데..... 따로 영어 공부를 시킨 적도 없었고,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이곳 교육과 맞았는지, 가던 해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잘 하던 아이가 아니었다. 연예인 쫓아다니고 배우를 한다고 하고, 비결을 물었더니 한국에서 너무 놀아서 이제부터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나, 어쨌다나. 하여튼 마음 잡고 있는 애를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없어서 내 일들을

정리하고 짐을 싸서 막내와 함께 새 학기에 맞추어 8월 중순에 왔다. 이민을 방금 왔으니 아직 할 일도 없어서 신문에 보니 오케스트라에서 자원봉사자(volunteer)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일부터 하다 보니 내가 한국에서 했던 일과 비슷한 일로 연결이 되었다. 지금도 목사님이 “낙 하산을 타고 떨어져도 나처럼 바로 정확한 자리에 내리기 힘들 것 같다고 하신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유학생들은 주말에 할 것이 없어서 쇼핑을 하거나 노래방에 가는 것을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국에서도 성년 청소년 교향악단을 지금의 지휘자와 함께 만들었던 노하우를 살려서 이곳에서도 한국 청소년 교향악단을 만들었다. 연습을 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니 한국어를 잘 하지 못 하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되었다. 또 음악으로 캐나다와의 교량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봉사를 다니며 한국을 알리는데도 일조를 하게 되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곳에 한국전 참전 용사가 계시는 보훈 병원에서 지금도 계속 6년째 크리스마스 연주회를 열고 있다. 첫 해에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 뵈니 울먹거리시고 계셨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지만 내 생각에 “폐허인 한국 전쟁 때를 떠올리시고 지금 이렇게 한국 청소년들이 눈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감이 교차해서 그렇지는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다른 할아버지는 내년에는 아리랑을 연주해 달라고 하셨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음 해에는 국악기인 피리와 함께 공연을 해 드렸다. 많은 분들이 흥얼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다. 그럴 때면 음악을 전공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인 타운에 살다 보니 LA 한인 타운보다도 백인을 만나기도 어렵고 영어는 더욱 사용할 일이 없어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시키며 떠벌떠벌(double)을 말하는 것이 고작이다. 작년 9월부터 케네디언 사회에 좀 더 깊숙이 가 보려고 이곳 음대에서 다시 지휘 석사를 공부 중이다. 사실 공부하는 것은 평생 동안 필요에 의해 하다 보니 그렇게 겁이 나지는 않았다.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대학원에 가는 애는 별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한 바이올린 교본이 없는 것을 알고는 이대 교육대학원에 진학했었다.

21 페이지에 계속

2011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19

이화 할머니

김영채 (영문 59)
신시내티 지회



김영채

버터냄새 때문에 카페테리아에 가는 것조차 주저하던 미국 기숙사 생활동안 옛 이대동산의 기숙사 ‘진관’에서의 생활이 마냥 그리웠다. 문학 소녀였던 4년동안 우리 이대정원에 크게 자리 잡고 있던 최고급 숙소인 그 곳에서 예쁜 추억의 수를 놓기도 했었고, 다시 못 올 학창시절의 아쉬움도 가슴에 담았고, 앞날을 설계하며 뭉게구름을 타고 상상의 세계로 여행하며 황홀해 했던 그리운 그 시절을 되새김질하느라 꽃잔등이 시큰해 지기도 했다.

한국 음식점이 없었던 관계로 그 좋아하는 물냉면 뽕새가 코 앞으로 살짝 스치는가 하면, 맛있는 된장찌개 밥상이 환상으로 보이기가까지 했다. 음식을 즐기는 나에게는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역인 듯 싶었다. 고향을 애타게 그리워 했던 때였으나 아마도 한국 음식이 가장 그리웠을 게다.

서울 떠나기 며칠 전, 나를 아끼시던 한 교수님께서 점심을 사주시며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다. “지금은 열 손가락의 조건이 다 갖춘 남자야만 된다고 생각하나, 귀국하면 다섯 손가락에 차는 사람도 드물 터이니 미국에 있을 때 세 손가락 조건이 맞는 남자가 있으면 결혼해” 라고. 그래서 세 손가락 조건의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여 45년을 같이 살며 미국 생활의 단맛, 쓴맛, 세상맛을 보고, 인생살이 칠십평생, 이제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다.

지금은 두 손자의 할머니. broken Korean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어린 것들은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 호뭇하여 마냥 행복해 진다. 청국장으로 두부찌개를 하니 “두부 방구했다” 라는 큰 손자 희선(Tyler), 친할머니(정경자, 가정학과 62졸업)께서 정성껏 키우시는 채소들을 한국말로, 영어로 “tomato, cucumber, lettuce, and you know... pee pee 아, 꼬추” 라고 떠들어대는 둘째 진선(Mitchell)이 참으로 귀엽기만 하다.

작년 한국 전쟁 60주년 행사에서 우리 이대를 소개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구글에서 얻은 정보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여성만의 대학’ 이라고 써여 있었다. 우리 딸들 사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나 손자

들에게도 ‘이화’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얼마나 훌륭한 할머니를 가졌는지를 알리고 프라이드를 심어 주고 싶었다. 가장 훌륭한 부모를 가졌다고 믿는 그 애들에게...

젊은 날의 꿈도 구름에 띄워 보내고 높은 곳대로 어느 정도 낮아진 지금의 나는 두 손자들을 자랑으로 삼는 “팔푼” 짜리 이화 할머니가 되었다.

내가 아는 대학 준비 요령

공정원(영문 83)
보스턴 지회

모든 것이 완벽한 우리 아이는 왜 아이비리그 대학에 불합격되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하소연하는 질문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빠질게 없다. 좋은 사립학교나 학군이 좋다고 알려진 동네에서 성적도 좋고, SAT, AP시험 성적도 좋다. 공부하기 바쁜 틈을 내어 바서티 팀에서 운동을 했으며, 여름방학마다 좋다는 인턴쉽이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은 학생일수록 실망감이 크고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흔히 성적이 좋을 경우 에세이나 과외활동 등에 문제가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완벽했다고 말하는 학생은 무엇을 잘못했을까?

대학입학 사정방침은 바뀐다. 이제는 수년 전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도 누구도 확신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몇년 전에 통하던 입학사정방식이 요즘에는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제는 주립대학조차도 지원자가 너무 많아 성적만으로는 학생을 선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여기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성적, 에세이, 과외활동 외에 어쩌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입학 결정 요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요즘 대학들 사이에서 ‘context-based evaluation’에 중점을 둔다고 말한다. 사실 이런 기준은 처음 시도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측에서는 항상 사용해 왔다. 즉, 부모가 의사나 교수 등 프로페셔널이고, 박사 학위 소지자이며, 비싼 등록금을 내는 사립학교를 다니고, 비싼 레슨비를 내고 악기를 잘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 정도의 환경에서 자란 학생은 당연히 대학에서는, 비싼 입학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다. 반면 좋지 않은 학군의 공립학교를 다니

면서, 파트타임으로 힘들게 일하면서 공부하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얻은 SAT 2300점은 같은 기준에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최대한 노력했느냐가 크게 좌우한다. 너무나도 공평하고 민주적인 관점이다.

대학입학 컨설팅하는 곳에서는 ‘수천개의 에세이를 읽어야 하는 입학사정관들에게 구성이 영성한 에세이를 읽을 만한 인쇄성이 없다! 또 글을 잘 썼지만 목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원자라도 종종 불합격 처리된다.’ 라고 말한다. 이제 부모들은 너무나 혼란스럽다.

하지만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더라도 모든 지원서 작성은 학생의 주도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모든 것을 입학 컨설턴트에게 의존한다거나, 이곳 저곳 여러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어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학생이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세련된 문체로 쓰여진 에세이, 학생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고 일관성이 없이 쓰여진 원서작성 등은 신뢰감을 줄 수 없다.

미국 속담에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즉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는 말이 있다. 이제 대학 입학 에세이를 쓰는 과정은 입학 결정에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의 ‘주관적인 사고’와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작가 소개

공정원 선생님은 보스턴 근교 브룩라인 공립학교에서 16년째 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입학 컨설턴트인 엘리자베스 위스너-그로스의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알려주지 않는 272가지 비밀/미국 명문대학 입학기술’을 공동 번역하셨습니다. 이 글의 일부 내용은 여기에서 인용하였을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9 페이지에서 계속-얼떨결에 간 이민

그 때 우리 이화 대학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시험을 보지 않고, 교수 추천서등의 서류전형만으로 뽑아주셔서 졸업을 하고 한참 동안 머리를 쓰지 않고 있다가도 마음만 먹으면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니까.

하필 그 때에 교육대학원 분이 붙어서 7.8:1 이었는데도 운 좋게 공부를 다시 할 수 있었다. 지원 할 때도 편안하게 “떨어져도 수입인지 값만 손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영어도 4학기 안에 패스를 하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었다. 그 덕에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논문을 바탕으로 한국 최초의 바이올린 교본을 만들어서 3판 인쇄를 했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필요에 의한 공부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뽀리를 뽑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랬다면 교수를 하면서 후학 양성에 더 보람이 되고 힘도 덜 들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교향악단을 운영하다보니 굉장히 힘이 든다. 뚜렷한 후원자도 없고, 12학년이 되어 졸업을 하고 미국이나 동부로 가버리다 보니 아이들도 계속 바뀌고, 악기들도 들쭉날쭉 있다가 없고... 어느 예고나 음대에서 일정 실력이 있는 아이들을 지도해 보고 싶다. 오죽하면 군대는 2년간은 꿈쩍 못하니 그런 곳의 지휘자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해 보았을까.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음악 교육에 바쳐온 평생의 노하우를 후배들 양성에 쓸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서, 훌륭하신 선, 후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금도 무엇을 할까 망설이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하는 우리 이화인들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남은 인생을 보다 즐겁게,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취미가 같은 모임에 다녀도 좋고, 자원봉사를 해도 다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또, 시간이 많고 잠념이 많은 분들에게는 어떤 방면이든 공부를 하면 잠념없이 시간은 참 잘 간다. 사람들이 나를 ‘밴쿠버 엔돌핀’ 이라 부른다. 한 때는 나도 노래 교실을 하며 봉사를 통해 그늘진 얼굴에 웃음을 피게 해드린 적도 있다. 이제 2011년 10월 많은 이화인들이 보스턴을 향해 오실 것이다. 그 때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하며, 한말 더 나아가 2012년 이곳 밴쿠버에서 북미주 총회에서도 ‘밴쿠버 엔돌핀’ 과 함께 계속 이화인들을 만나 뵙기를 희망해 본다.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도서관

김지완(도서관 89)
워싱턴D.C.지회



김지완

2009년 은퇴하기 까지 특수, 대학 및 공공 도서관 등에서 골고루 미국 도서관을 경험 하였으나 이번 글에선 그 중 가장 오래 몸 담았던 공공 도서관에서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내가 살고 있는 Fairfax County의 도서관 시스템 문을 두드린 것은 2003년, 하와이에서 버지니아로 이주한 후 일년이 지난 해였다. M.L.S. (Master of Library Science)를 소지하고 있어서 Information Specialist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도서관에 들어가면 크게 두 군데로 나뉜다. 그 중 하나는 Circulation Desk로서 각종 자료를 대출하고, 대출을 연장하거나 예약된 자료가 입관되었음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에 도서관 카드를 발급하고 분실시 제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분실시 연락해야 할 곳이 이 곳이다. 또 다른 부서는 Information Desk로서 보통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학부에서 한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과정으로 도서관학을 이수한 사서들이 이용자들을 위해 일하는데 이들은 적어도 한, 두 분야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미국인들은 놀라울 만큼 도서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산다. 우리 삶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종 분야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무척 높고, 그 관심과 참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찾아와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한편으론 경이롭기까지 하였다. 현 미국 사회에서 일하는 각종 정치가들의 정보, 주식 및 경제 정보, 심지어 법률 문제는 물론이고 아이들 학교의 교과과정에 부응하는 각종 문학, 예술 정보 등등 처음 시작 몇 달은 너무나 다양하고 예측불허한 질문들로 인하여 당황도 하였고 또 그 질문들을 소화하고 답을 찾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이용자들은 사서들이 만물박사인 줄 아는 것 같았다. 단순히 조용한 열람석에 앉아 공부하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닌, 삶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었다.

Adult Specialist 는 주로 어른들 Book club 조직이나 ESL class 조직 또 어른들을 위한 참고봉사(Reference Work)를 주된 업무로 한다. 예를 들자면, 책 제목은 잊었는데 내용이나 주인공 이름만 생각날 때 그 도서 제목을 찾아서 예약을 해 준다거나, 세탁기를 사고 싶는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회사 이름을 알려주는 등의 일도 한다. 또한 tax season이 왔을 때 tax form (Federal/State)을 관리하고 이용자들에게 배포하는 일도 관여한다. 이외에 각

종 Database를 이용하는 법도 가르치고 있다. 각종 압에 대한 지식, 각종 회사의 주소나 전화 번호, 연락이 두절된 친구의 전화 번호 찾기로 사설 탐정이 된 느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뮤쥬얼 펀드의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 했는데 이때 이용하였던 것이 Morningstar database였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는 도서관 내에선 물론 도서관 카드만 있으면 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Children's Specialist 는 말 그대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돕는 사서들로서 각종 분야별, 연령별, 흥미별 도서 목록 제작이나 스토리 타임을 담당하고 특히 여름 방학 때면 도서관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 만들기 등을 주도한다. 특히 Summer Reading Program 때문에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도서관은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이때 가장 수고하는 사서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 Summer Reading Program은 일정 수의 도서를 읽게 한 후 상을 줌으로써 독서를 권장하는 프로그램인데, 각종 공립, 사립학교들이 이러한 도서관의 목적에 부응하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책을 읽게 한 후 쓴 독후감을 새학기 영어 교과 성적에 반영하기도 한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Database도 매우 다양하며, 역시 도서관 카드 소지자에 한해 집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가장 많은 학생들의 질문은 고등학교 영어과목의 고전문학비평에 관한 기사(articles)들 이었다. 이 외에 초,중,고 등학생들의 영어나 윤리 과목에서 어떤 주제에 대한 발표를 위한 신문, 잡지 등의 기사들을 많이 찾았는데 Lit Finder, Gale Virtual Reference Library database를 썼다. 그 외 달랑 낫구 한 구를 가지고 와서는 시의 제목과 저자를 알려 달라던 이용자도 기억에 남는다.

이 외에 Branch에 따라 Business Specialist 가 있고 최근에 도입된 Virtual Reference Specialist가 있다. 내가 Information Specialist에서 옮겨 와 일했던 곳이 바로 이 Virtual Reference 파트였다. 즉 집이나 직장 등에 있는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시스템에서 구독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메일이나 instant message, text message 또는 실시간으로 스크린을 공유하면서(live chat)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스크린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사용법 등을 실제 보여 줄 수 있어 도서관에 오기 불편한 이용자들에게 참으로 유용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보통, 대학이나 공공 도서관들의 웹사이트에서 Ask-A-Librarian이란 link가 보이면 Virtual Reference (실시간 참고 봉사)를 한다고 보면 된다. 또한 집에서 다운로드해 개인의 PC에서 읽고 보거나 또는 compatible portable devices (예로 Android, BlackBerry, iPhone/iPad)에 다운로드 해 볼 수 있는 eAudiobooks, eBooks 그리고 eVideos의 사용법에 대해



step-by-step으로 이용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직장까지의 통근거리가 긴 이용자들이나 자동차로 긴 여행을 하는 이용자들이 이런 digital format의 자료들을 많이 선호한다.

이상으로 내가 살고 있는 county의 공공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요약해 보았는데 공공 도서관의 많은 이용을 권장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 도서관은 알다시피 우리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곳이다. 따라서 우리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기 위해 더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더 좋은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졸업생

Lauren Olivia Hong(국제대학원 2010)
보스턴 지회

내가 한국으로 간 것은 수영할 줄도 모르면서 깊은 수영장에 뛰어든 것과 같았다. 김치가 어떤 맛인지 몰랐고 한국어는 너무 낯설었다. 미국 중서부지역에서 자란 나는 당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한 것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2007년에 Drake University (Des Moines, Iowa)를 졸업하기 직전, 나는 미국무부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제주도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장학금을 신청한 것은 도전정신을 키우고 세계에 대하여 더 배우기 위해서였다.

한국으로의 파견이 결정되자 한국에 대한 내 관심은 급증하였다. 내가 한국에서 접한 이야기, 전통, 문화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겸허하게 만들어 주었다. 제주도에서 1년을 지낸 뒤, 나는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을 밟았다. 이대 국제대학원은 학생과 교수, 직원이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어서 흥미로웠다. 국제대학원은 독특한 수업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졸업 전에 반드시 인턴십을 거쳐야 한다. 국제대학원의 각 수업과 전 과정은 마치 작은 UN 과 같았다. 대학원 졸업 후, 나는 미국에 돌아와 국제 개발 컨설턴트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에는 펜타곤에서 일하고 있었다. 우리는 죽이 맞아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였다. 2010년 8월, 스탠포드 기념교회 Stanford Memorial Church (Palo Alto, CA)에서 결혼한 우리는 지금 보스턴에 살고 있다. 해니는 하버드대학교 존 F 케네디 스쿨의 공공정책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나는 아직 워싱턴 DC의 직장에 속해 있으며 원거리 업무를 보고 있다.

한국에서, 이화에서 보낸 시간은 오늘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해주었으며, 이 세계와 그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했다. 또한 여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상 유지를 벗어나 변화를 시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다.

국제대학원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다. 국제대학원의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지만,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이나 교수는 별로 없다. 교수들은 전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각 수업이 나름 작은 UN이 된다. 우리는 그곳에서 국제적인 문제들을 공부하였다. 우리 대부분이 국제적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뛰어든 것은 매우 도전적인 시도였다. 그 경험에서 얻은 보상과 친구들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만큼 귀하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에 대해서는 웹사이트(<http://gsis.ewha.ac.kr/>)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화에서 공부하던 어느 겨울밤학, 나는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일주일 정도 미국에 온 적이 있었다. 그 때 집안 어른이 해니를 소개시켜 주었다. 지금의 남편이 된 해니는 로스앤젤리스 출신의 한인 잠수함 장교로서, 당시

남편 해니와 함께

2011 충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23



임길재 박사님의 만 100세 생신을 축하하며

장혜원 (약학 50)
뉴욕 지회



임길재 박사님 상수(100세) 축하연

임길재 박사님은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바로 다음 해인 1911년 2월 18일에 경기도 안양에서 9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나셨습니다. 서울에서 소학교를 마치고 개성 호수돈고녀에 입학했을 때 집안에서 자신을 시집 보내려는 기미를 알아차리고, 1924년에 집을 나와 정동교회 김중우 감리사의 보호를 받으며 이화여고를 다녔는데, 개성에 있던 미국인 클라라 하워드 선교사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아 무난히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 해 이화여고 졸업 때에 박사님에 대한 기사가 동아일보에 실렸던 것이 계기가 되어 어머니의 방문을 받고, 이 후로는 강제로 혼인을 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아래 1929년에 이화전문 문과에 진학하시고 1933년에 졸업하셨습니다.

이화전문에서 공부하는 동안, 1931년 10월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학업을 지내시던 김활란 박사님을 존경하며 많은 영향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1934년에는 황해도 백천에서 10개월 동안 교회 뒷방에 거처하면서 농촌 계몽운동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이지만 인류를 위해 무언가 해 봐야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1935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제국여자 의학전문학교에 진학 1941년에 졸업하고, 그 해 가을에 귀국하여 지

tal에서 5년 동안 intern과 resident를 마치고, Johns Hopkins University Hospital의 fellow, 1958-60년까지는 New York Medical College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1960년, 동양인 최초로 뉴욕 주에서 의사자격증을 획득하시고, 이후 한국인 최초의 개업의가 되어서 1986년에 은퇴하실 때까지 열심히 인술을 베풀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생애를 통해 임 박사님의 또 하나의 업적은 심혼을 기울여 이화대학을 사랑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큰 은사님이신 김활란 선생님의 뜻을 생각하

시며, 지금도 선생님이 생존해 계신 양 마음 속 깊이 모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께 지혜와 인도를 구하며 살아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1966년부터 70년까지는 김활란 박사님을 도와 이화10년 발전계획 뉴욕지부 책임자로, 1967년에서 69년까지는 Ewha Cooperating Board of North America 이사로, 1970년에는 이화대학 국제재단의 창립이사로, 1981년부터 2001년까지는 국제재단 Vice-president로 수고하셨습니다. 뉴욕에서 이화대학 동창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1964년 뉴욕에 이화대학 동창회가 조직되었을 때 초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임길재 박사님은 자신의 생활은 매우 검소하시며 절약을 많이 하시지만, 큰 뜻이 있는 데에는 누구보다도 크게 베푸셔서 큰 감동을 주십니다. 1971년에 새로 창립된 이화대학 국제재단의 사무실 운영자금에 부족해서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선뜻 만 불을 내 놓으셔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40년 전, 현금 만 불은 큰 액수였습니다. 또 뉴욕에서 제일 오래된 뉴욕한인교회 건축을 위해 30 여 년 전에 십삼만 불에 해당하는 집을 헌납하신 일도 있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임박사님의 덕행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면입니다.

금의 서울대약부속병원의 전신인 성성제국대학 의대부속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학위논문을 준비하여 1945년 해방되던 해에 의학박사 학위를 획득하셨습니다

해방 후 1945년 9월부터 3년 반 동안, 김활란 총장님의 특청으로 박사님은 이화여대 부속 동대문병원의 산부인과 교수 겸 과장으로 봉직하셨습니다. 1949년 4월에 초대(初代) 미국무성 초청으로 선발된 10명의 의사들 중 유일한 여성으로 참가하여 도미하게 되었고, 6개월 동안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연수하셨습니다. 1950년에 뉴욕으로 오셔서 Brooklyn에 있는 St. Catherine's Hospi-

이화대학은 1976년 창립 90주년 기념식에서 임박사님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고, 1997년에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선정했습니다.

P.S. 뉴욕에서 7년간의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후 외국출신에게 의사면허시험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인종차별이 심했던 뉴욕주를 상대로 당국에 청원서를 제출해 시험자격을 얻어냈고, 미국학교를 다니는 것이 좋겠다는 단서를 따른 관계로 미국내 의사면허 취득이 지연되었음을 밝힙니다.

24 2011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뉴욕 지회

유덕향(약학 71)

매해 큰 행사인 연례만찬이 뉴욕을 방문 중이셨던 총장님 환영만찬을 겸하여, 2010년10월24일 Flushing, NY에 소재한 대동 연회장에서 이화 사위를 포함한 1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박문순(사학 66) 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제1부에서는 장화인(교심 69) 이사장의 기도와 유덕향(약학 71) 회장의 환영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김선옥 총장님의 46주년을 맞은 뉴욕 동창회에 대한 축하말씀과 김순영 총동창회장님의 격려 인사말씀이 있었고, 박동숙 대외협력처장님, 박관길 국제교류처장님의 모교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김선영 동창(성약 95)의 축하, 이정화(영문 70) 전 회장에게 공로패 증정, 윤랑주(간호 69) 장학위원장의 장학금 수여가 있었고, 교가 제창으로 1부 순서를 마쳤습니다. 만찬에서는 ECC에 관한 비디오 상영이 이어졌으며 제2부는 일곱명의 86년 졸업동기들이 “NOBODY” 춤으로 흥겹게 막을 열었습니다. 송미숙(사회 88) 동창의 Line Dance 지도에 따라 동창들의 동참이 줄을 이었고 자발적인 노래 참여와 자유 댄스시간은 만찬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총장님의 마지막 Raffle(42" TV) 추첨을 끝으로 연례만찬은 내년을 기약하며 아쉬운 시간을 뒤로 했습니다.

1월 22일 북부 New Jersey 세번째 지역모임이 이옥남(약학 57) 동창 댁에서 있었습니다. 스물 한 분의 동창들이 모여 송미숙(사회 88) 동창의 인도로 Line Dance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창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과 90년 후반에 졸업한 동창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2월 4일 임원간담회가 점심을 풍성하게 준비한 주성남

Boston과 Philadelphia에서 오신 동창들을 포함한 많은 후배들과 지인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상수 축하연은 임박사님의 약력 소개, 일생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 상영, 선물 증정/축전, cake cutting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임박사님은 후배들이 마련한 이 자리에서 “뜻 밖의 생일잔치를 맞게 되어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하겠다”며 끝내 눈시울을 적시셨습니다. 이 상수잔치에 모교의 윤후정 이사장님과 김선옥 총장님은 화환, 선물과 축하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3월 15일 2011년 이사회 및 정기 총회가 Manhattan에서 있었습니다. 장화인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사회에서는 대뉴욕지구동창회 장학위원회에 서희정 동창(정외 72), 북미주지회연합회 선출이사에 안미상 동창(약학 66)이 추천되었고, 이사회에 이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장화인 이사장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정기총회에서 유덕향회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여섯개의 지역모임이 각각 한 번씩의 모임을 가졌고 북부 NJ 지역모임은 4월에 네번째 만남이 있다고 전하며 올해는 더욱 활발한 모임이 되기를 부탁했습니다. 안혜숙 서기의 전 회의록 보고와 박영숙 총무의 2010년 회계보고가 있었으며 참석 한 회원들은 이를 인준했습니다. 새로 나온 동문 소개가 있었고, 안건으로 장학위원회 선출이사 선출이 있었습니다. 5월 10일 정기모임, 6-7월에 있을 각 지역모임, 10월 27-30일 Boston에서 있을 지회연합회총회에 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10월 말에 있어 왔던 뉴욕동창회 연례만찬은 종래의 금요일보다 일요일 날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길재박사님 100세 축하연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는 보

(불어교육 74) 동창 택에서 있었습니다. 2011년 행사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1월 말에 발행된 newsletter를 1,000여 명의 동창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2월17일 임길재 박사님 상수(100세) 축하연이 Flushing,

NY에 있는 급강산 식당에서 70여명의 후배들과 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임박사님은 어려운 시대를 앞서 나간 개척자이자 한 세기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뉴욕주 최초의 동양인 개업의이시며 1964년 대뉴욕지구 동창회를 창립하는데 주역을 담당하셨고, 초대 뉴욕 동창회 회장으로 수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30여년 동안 동창회 고문으로 계시면서 많은 후배들에게 모교 사랑의 귀감이 되신 분이십니다. 멀리 Michigan,

고와 이화여자대학교동창회 100년사 책에 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총회를 마치고, 이시은 동창(체육 90, 교육 대학원 94)의 “사랑과 섬김의 이화인 리더십”에 대한 재미있는 강의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진행되었습니다.



2011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25



EWHA 2011

지회연합회

2010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가 남가주지회 주최로 열린다

2010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로스앤젤레스 Westin Bonaventure Hotel 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북미주에 살고 있는 이화인들의 큰 축제로 본교와 총동창회에서 인정하는 연례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20여 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과 이화의 사위들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새로 취임하신 김선옥 총장님과 김순영 총동창회장님도 한국에서 오시어 행사가 더욱 빛났다.

11일 목요일 오후 3시 산타모니카룸 에서 행사 임원들은 이화 Staff 라고 쓴 초록색 티를 입고 도착하는 동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안내했다. 등록을 마친 후 시간 내에 도착한 동문들은 임원진의 인솔 하에 모두 Wi Spa 에 도착 마인스 시사와 호시은 축하대서 머 길크르티이

째 시카고 쪽의 북미주총동창회는 이화여대 총동창회의 회칙과 정통성을 따르려 하지 않았고 지회 조직을 인정하지 않아 지회를 약화시켜 붕괴시키려 하고 재정을 발전기금이라고 모금하여 모교에 전하지 않고 보유하는등, 기금 운영이 불투명한 점을 들었다. 이정형 이미옥(2008,2009) 회장도 같은 뜻을 전했다. 각 지회 소개와 연합회 재정 보고 후에 회칙 개정안 보고 및 인준에서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새영문이름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를 포함한 회칙 개정을 통과시켰다. Alumni(nae) Association은 대학이 위치한 곳에서만 쓰고 다른 지역의 동창모임은 Chapter나 Club으로 쓰는 점을 여념해서 이다. 이어서 2011년 지회연합회 총회 주최지로 결정된 보스턴의 조수현 지회장이

게 근거, 지켰던 것까지 파헤쳐 지어낸'은 '원조'가 버거
피곤함을 풀었다.

12일 금요일 간단한 운동과 아침식사를 마친 후 지회장들은 회의장으로, 십여명의 동문들은 Universal Studio투어로 또한 이순자 박사의 부부 사랑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점심을 한인타운으로 가서 즐겼다. 총 25명이 참석한 지회장 회의는 회칙개정안과 새로운 영어이름, 차기 지회연합회 총회 주제를 결정했다. 저녁에는 북미주의 동문과 교환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총장님과 만찬’을 가졌다. 오명애 회장의 인사에 이어 김총장은 “모교는 총동창회의 결정에 함께하고 북미주지회연합회의 역량이 커지기 바란다”고 전했다. 파주 캠퍼스사업 설명과 학교사업인 ‘공감과 소통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김순영 회장은 총회 준비를 한 남가주지회의 수고에 치하와 축하를 전하고 이화동창들은 동창회의 원칙과 조직을 지키고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악과 출신 남가주지회 중창단의 예술 가곡합창과 교가제창으로 1부 순서를 마치고 사진 촬영이 있었다. 저녁식사에 이어 2부 순서로 모교 소식을 박동숙 대의협력처장이 전했다. 18만 이화 가족찾기 캠페인과 장학생 돕기 ‘선배라면’을 소개했다. ECC 건물영상을 감상하고 캠퍼스투어 초대도 했다. 이어 흥겨운 이화 가요제가 열렸다.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임수경(75작곡) 남가주지회 이사장의 사회로 이사회 구성을 포함한 회칙개정안 통과, 영어 이름, 재정보고 또 이번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설명이 있었다. 최성남(70약학 뉴욕)**2007** 연합회장은 통합이 결렬된 이유로 첫

총대입이 됐다. 또한 이사회 구성과 회칙 개정 방향에 대한 호사 소송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으로 오명애 이사장에게 위임 권한을 인준하였다. 회의를 마친 후 50여명의 동창은 폴게티 뮤지엄으로 떠나 화창하고 따뜻한 햇살 아래 유명한 아름다운 정원과 미술품, 공예품, 또 산타모니카 비치를 내려다 보고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돌아왔다. 호텔에서는 성기순 동문의 민화강습과 이재명 교수의 창조과학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저녁 6시30분 연례만찬이 카타리나룸에서 남가주동문을 포함하여 300여 명의 이화동창과 사위들이 참석하여 학년별 게임으로 시작되었다. 오명애 회장은 역대 지회연합회 회장과 덴버 TFT멤버를 소개했다. 김선옥 총장은 이화의 가치를 강조하고 김순영 총동창회장은 총회의 성공을 축하하고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발전을 바라는 인사말을 했다. 남가주합창단의 합창으로 1부 순서를 끝내고 한나리(92체육) 동창의 사회로 뉴욕, 남가주, 보스턴지회 Dance 등,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들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금요일부터 시작된 남가주녹미회 Art Auction 도 더불어 진행되어 27명 동창 작가들의 예술작품으로 7200불의 성과가 있었다.

14일 일요일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조찬을 마친 후 이수훈(화학59) 목사의 설교로 주일예배를 드렸다. 곧 정다운 총장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내년 보스턴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아쉬운 작별 속에 3박 4일간의 행사를 마쳤다.

김용란 홍보부장(신방 73)
이영강 남가주 편집장(국문 66)
조수현 (수학 76) 간추림

26 2011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남가주 지회

오명애(장식미술 74)

남가주동창회는 195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등록된 회원은 1400여 명이고, 임원은 27명, 이사는 28명입니다. 동창회 산하에는 선교부, 합창부, 골프부, 녹미회, 건미회, 이음회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동창회보가 4월과 11월, 일 년에 두 번 발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총회가 거행되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특집”으로 꾸며져 본국과 미주 전역에 5000부 가량이 우송되었습니다. 또한, 남가주동문합창단 공연, 총장배 골프대회, 연말파티 겸 정기총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거행되고, 기금모금을 위한 일일 찻집, 패션쇼, 야유회, 한가위 행사, 다양한 티켓 판매,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회 이화여대 동창 패션쇼

2010년 11월 4일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후반기 정기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2010년 회계 보고와 사업 보고가 있었고, 임수경 이사장, 오명애 회장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새 이사에 이윤주(체육 83)동문을 선출했습니다. 2011년 이사진과 임원진은 2010년 그대로 연임했습니다.

2011년 2월 25일 금년의 첫 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명애 회장 및 10여 명의 임원이 참석하여 이화동창 패션쇼 (4/20 예정), 남가주동문합창단 정기공연 (5/22 예정), 총장배 골프대회 (9/21 예정), 총회 및 연말 Party (12/4 예정) 등의 2011년 사업계획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북미주지회연합회 결산 및 남가주동창회 결산 재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잔고는 CD 예금 \$ 72, 868. 23, 보통예금 \$ 5807. 77 입니다.

3월 8일 제 2회, 3월 22일에는 제 3회 임원회가 열려 앞으로 행사와 특히 패션쇼에 관해 구체적으로 토의했습니다.

3월 11일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전반기 정기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임기 중인 임수경(음대 75) 이사장이 개인사정으로 이사장직을 사임하게 되어 동창회 회칙에 따라 부이사장인 박화자(간호 66) 동문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동창회, 특히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대한 오명애 동창회장의 사업보

고 가 있었고, 김정순 부회장이 2011년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월 6일 오명애 회장 임원들이 남가주 지역 1400여 명의 동문에게 2011년 4월 “이화동창회보”를 우송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 예정된 패션쇼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4월 20일 제2회 이화여대 동창 패션쇼가 가든 스위트 호텔

2층 연회장에서 열려 약 30여명의 모델이 협찬된 옷을 입고 멋진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젊은 모델들의 Casual 복을 시작으로, JoAnn Knits 의 화려하고 독특한 니트, Poly Dress가 제공한 Prom Dress 등이 선을 보였고, 특히 조선명주의 한복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멋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회장을 가득 메운 100여 명의 동창 및 내빈들은 모델들의 프로 못지않은 무대 매너와 멋진 워킹에 박수와 환호의 갈채를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동창들이 후원해 주셨고 후원업체들과 제단 관계자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마련된 기금은 모교와 동문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5월 22일 제3회 남가주동문합창단 정기공연이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40여 명으로 구성된 동문합창단은 플루트와 바이올린을 곁들인 반주로 신의 영광, 마을의 풍차, 사랑의 기쁨,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강 건너 봄이 오듯, Sound of Music Melody 등, 성가와 외국곡, 그리고 우리나라 가곡을 불러 500여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특히 장경혜(피아노 75) 동문의 오르간 독주와 정원혜(성악 83) 동문 등, 여섯 명으로 구성된 이화동문 중창단의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회는 더욱 돋보였습니다. 앵콜곡으로 에델바이스를 선보였고 교가제창을 끝으로 연주회는 대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지휘 엄인용(성악 72) 동문, 피아노 조은미(피아노 82) 동문, 오르간 반주에는 장경혜 동문이 수고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화사한 의상에 꽃다발을 한아름 안은 출연자들과 함께 친교실을 꽉 메우다시피한 동문, 가족, 친지들이 동창회측에서 준비한 다과를 나누었습니다.

동문회 활동과 소식은 www.Ewhain-NA.com을 통하여 보다 보다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2011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27



EWHA 2011

지회/소식

북가주 지회

조성연 (사회 90)

세계적인 로맨틱 도시로 손꼽히는 샌프란시스코, 절경의 시에라 산맥, 아름다운 와인의 명소 나파, 그리고 세계 첨단 하이테크놀로지를 이끌어 나가는 실리콘 벨리가 위치한 북가주에 거주하시는 이화인들이 모여서 북가주 동창회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40여년 전 유학생으로 시작된 작은 모임이, 이제 400명의 회원이 등록된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매월 첫째 토요일에 정기 모임을 하면서, 북가주 지회에 소속된 동창들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본교, 총동창회 및 국제재단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항상 이화인임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나누는 북가주 지역사회 활동으로 추수감사절 식사 봉사, 동창자녀 장학프로그램, 한인사회 봉사단체 지원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문화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항상 쾌적한 날씨 속에서 갖게 되는 매월 동창회 모임은 모든 회원들에게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마음 설레이는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2010년 11월 11-14일 2010 지회연합회 총회에 십여명의 임원과 회원이 참가하여 총장님과 동창들의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4일 연말 모임으로 팔로알토스에서 모였습니다. 성탄도 함께 축하하며 노래했고 장구 춤 공연도 있었습니다.

1월 8일 정초 파티로 한국의 집에서 윷놀이도 즐겼습니다.

3월 5일 남가주 동창회 정기 총회가 쿠퍼티노에서 있었습니다.

6월 4일 정기모임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모던아트뮤지엄에서 조찬과 박물관 관람을 하였습니다.

북가주 지회의 소식은 EwhaSF.com 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지회

이정열(조소 11)

이곳 시애틀에는 약 200여명이 넘는 동문들이 계십니다. 일년에 한번 총회를 열고 매달 newsletter를 발행하며 한 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동문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의논, 결정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취미활동을 통하여 동문간의 친목과 교류를 돈독히 하며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도 많은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취미활동:** 골프부, 등산부, 합창단, 서예반, 볼링팀.
- **봉사활동:** 노숙자와 집없는 여성들을 위한 봉사와 기부등..

- **임원단:** 회 장 - 이정열(조소 11)
부회장 - 홍성희(약학 68)
총 무 - 김주숙(제약 78)
회 계 - 김희진(제약 85)
서 기 - 윤은성(약학 87)





28 2011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워싱턴 D.C. 지회

이영주(간호 72)



사진: 뒷줄 왼쪽 부터 문남희 음악부장(성악 69), 황정아 홍보부장(간호 71), 박정희 문화부장(사학 66), 연복례 부회장(약학 70), 이영주 회장(간호 72), 정남예 회계(법학 68), 앞줄 왼쪽부터 유연담 이사장(62 정외), 최윤희 웹마스터(전산 85), 김지완 총무(도서관 89) 이 외에 최은희 서기(전산 97), 이소영 법률고문(신방 78), 신장현 감사(교육 57), 이해자 감사(도서관 63), 최영 재무회계(교육 75)께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1월 22일 임원회 및 이사회 모임을 우레옥에서 가졌습니다.

2월 1일 Ewha Washington DC 지회 Website 및 황화방 Forum 이 최윤희(85 전산) 동문의 수고로 개설 되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동창회 활동과 행사에 관해 더 빨리, 더 자세히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EwhaDC-chapter.org 로 방문해 주세요. 1/22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디지털 시대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더 많은 동문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한마디 남겨 주시고 재미있는 대화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3월 12일 합창단 결성 및 첫 연습: 7명의 단원이 참석하여 단단한 연습에 임했습니다. 3월 26일엔 합창단과 라인댄스 팀 두번째 모임으로 문남희 음악부장의 합창지도와 유연담 이사장의 지도하에 댄스 기본 동작을 배웠습니다. 자세한 사진과 내용을 황화방에서 보세요. Ewhadchapter.org

4월 9일 Hilwood박물관 견학 : 총 11명의 동문들이 함께 힐우드의 decorative arts와 그릇 등을 견학한 후 맛있는 점심을 함께하며 동문간의 우정을 다졌습니다.

5월 11일 어머니날 콘서트: 고 박영숙(의학 73) 동문의 따님 크리스티나와 사위 스티븐, 그리고 김유미(피아노 93) 동문의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고인의 부군인 Dr. Philip McGann의 초대로 40 여명의 동문들이 참여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푸짐한 저녁 식사를 대접받으며 합

계 했던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5월 21일 피크닉을 가지고 125주년 이화의 생일을 축하하였습니다.

5월 31일 신장현 동문은 모교 125주년 동창의 날 기념식에 참여하고 웹사이트 ewhadchapter.org에 보고하였습니다.



125주년 기념 케이크

알래스카 지회

김영혜(영문 77)

알래스카 지회는 연회비 200불과 파주 캠퍼스 조성 기금 100불 추가 회비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동문 교제 및 친목 도모: 9인의 지회 동문은 정기적으로 4분기 모임을 가지며 교제합니다. 여름이 짧은 탓에 더 자주 비공식 모임으로 건강 증진, 친목을 위해 등산, 화랑과 토요 마켓 나들이를 계획합니다.

2) 장학 사업: 이화 국제재단에 만불 장학 기금 조성을 위해 매년 적립금을 넣고 있으며 목표의 50%를 달성했습니다. 파주 캠퍼스 조성 기금 만불을 지회 이름으로 작



성하여 적은 숫자의 힘을 과시하였고 올해에 5,000불 불입을 달성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5년째 한인회 사업을 도와서 지역 사회 고교 졸업생 한 명에게 장학금 천불을 수여합니다.

3) 지역 사회 봉사: 6년동안 노숙자 기관과 AWAIC(여성 보호기관)에 연회비의 10%를 현찰 혹은 필요한 물품으로 기증하고 있습니다.

4)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동문 전원이 백프로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잘 섬기는 지회가 됨에 감사드립니다.

2011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29

토론토 지회

공영희(생활미술 71)



이화는 늘 저희들 모두의 아름다운 자부심이자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저희 모두 이화인이라는 자긍심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그 어느 누구보다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모두 저희 이화인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축복이었음을 겸허히 깨닫습니다. 2011년에도 저희 이화인들 더욱 가까운 식구로 모여 서로의 삶을 아로리며 다독이면서 선배님 및 후배님들 모두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1월 21일에 첫 임원회를 신임 회장 공영희 동문대에서 하였으며,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에세이집 발간과 주소록 개정, 문화행사 및 여름야유회, 연말 파티, 햇빛회 등의 세부 관련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2월 17일에는 햇빛회 모임을 가졌으며, 정은주 동문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3월 4일에는 정기 총회를 가졌으며 총 30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마치고, 전년도 서기보고와 회계보고 및 감사, 회칙 개정 등의 본회의, 금년도 사업계획 발표 및 ‘선배라면’ 홍보 등으로 첫 총회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임원/ 회장: 공영희 (71 생활미술) 부회장: 정명덕 (71 성악) 총무: 박보미 (00 영문) 회계: 전해순 (69 보건교육) 서기: 박선희 (86 국문) 홍보/출판: 탁연자 (71 사회사업), 김유경(84 불문), 김선희(81 영문) 사업부: 원정민(80 생미), 이강림 (84 수학), 최혜란 (83 교심), 유활란 (95 체육)햇빛회: 홍현정 (82 피아노), 장운화 (79 초등교육) 인터넷 웹사이트: 옥미경 (07 행정학), 박선미 (83 영문) 5월28일 토요일 야유회로 Kettleby, ONT 에서 재미있게 모였습니다.

2010년 11월 11일~14일 L.A에서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에 조미리(도예81) 지회장과 조화정(불문77)교문 및 김선희(영문81)홍보부장이 김순영 총동창 회장님과 새로 취임하신 김선옥총장님, 그리고 20여개의 북미주 지회들이 함께 하는 뜻깊은 모임에 참석하여 화합의 연합회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양일간 열린 모금 작품전에 박장미(서양 88), 차유경(서양 89) 동문

30 **2011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 작품을 보내 동참하였습니다.

2010 연말파티

11월21일 104명 동문들과 이화 사위들이 201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수정된 회칙에 의거하여 2011년도 회장을 뽑는 순서가 있었으며, 공영희(생활미술71)동문이 제28기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새천년 국민체조와 다양한 게임과 프로그램, 푸짐한 선물, 그리고 동창회에서 주문한 동창수첩을 나누어 드렸으며, 동창회기가 다음 회장단에게 이양되었습니다.

11월 25일에는 회계를 정리하였으며 감사를 거쳐 2011년 초 제 28기 회장단에 서기록과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동문회 활동과 소식은 www.EwhaToronto.com을 통하여 보다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아틀란타 지회

조성숙(가정 63)

애틀랜타 지회의 임원 임기는 2년이며 금번이 16번째 회장입니다. 애틀랜타에서는 매 월 둘째 주일 오후에 모여서 전후배간의 이야기 꽃을 피운답니다. 우리는 월계를 조직하여 1년을 마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달치는 연회비로 충당하여 세상의 계와는 다른 모금방법으로도 활용합니다. 금년에는 합창단을 창립하여 월 2회씩 모여 연습하고 있으며 Boston 총회에서 선을 보이려고 합니다. 골프모임도 매년 총장배 골프대회를 가지는데 금년은 가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한 동문의 가정에서 작은 바자회를 열어 보았습니다. 다기세트, 책, 의류, 신발류 등 동문들이 기증한 물품들이 모두 경매되어 동창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특별 프로그램으로 애틀랜타 Swan House, Hinman Home, Winbush House 등 유명한 저택을 방문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정기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 전체 회의와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하여 동창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더 많은 동창에게 다가가는 애틀랜타 동창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지회

조수현(수학 76)

2011 북미주 연합회 총회는 보스턴에서

보스턴 지회는 기쁨으로 10월의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 연합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의 총회는 모교와 총동창회가 인정하는 유일한 북미주의 연합 동창 단체이며 10월 27-30일의 총회와 향연에는 김선옥 총장님, 조종남 총동창회장과 임원들, 이화국제재단 비숍 레이더와 이사진, 박동숙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북미주와 세계 각곳에서 200 여명의 동문들의 참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Ewha Tradition Shines On~ 계속 빛나는 이화의 전통' 을 구호로 정했으며 달마다 모여 알찬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10월 28일과 29일에는 플리머스와 콘코드, 하버드와 보스턴의 역사적인 곳을 답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저녁 만찬시간에는 총장님의 말씀과 초청 강사의 스피치가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틴 맥간 부부와 김유미 동창(피아노 93)의 트리오를 마련하였고, 또한 BU 와 NEC 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인 김지혜(violin 05) 정혜연(viola 06) 권현지(cello 05) 박효진(piano 07) 동창들의 동문 음악인들의 4중주 무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또 성악가 조유미(90), 최진자(86) 동문을 포함한 네명의 소프라노 공연이 있습니다. 물론 이화인 노래의 향연, 지회에서 준비하는 깜짝 놀랄만한 talent show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엔 동호인회 모임으로 합창반, 컴퓨터반, 사진반도 모임 예정입니다. 세미나에 DC 동문 이소영 변호사와 공정원 대학 입학 상담자를 정했습니다. 특별 초청 강사로 하버드 법대의 석지영 교수 (동문 따님)를 정했습니다.

Pre-Conference trip으로 10월 25-27일 화-목 뉴햄프셔의 White Mountains, Mt. Washington 을 지나 메인주의 아가디아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2박3일 특별여행도 있습니다.

* 참조: pages 38, 연락처: 508-785-2641 ewha.boston@gmail.com

보스턴 동문들 소식

조수현 회장과 박영복 고문은 125주년 이화의 날에 참석하였으며 김선옥 총장님과 조종남 총동창회장님을 방문하여 격려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작년 11월 LA 총회에 5명의 동문이 참가하여 멋진 아바의 MoneyMoneyMoney 음악에 맞춰 밸리댄스 공연으로 익살 맞고 재미있는 잊지 못할 무대를 선사해서 일등 상금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한 달 동안 세 번이나 오신 고마운 김총장님과 또 많은 북미주의 동문들과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밸리댄스 공연 후

이문희(작곡 77) 준비위원장과 이동은(약학 96) 회계와 더불어 보스턴과 플리머스를 시찰하였습니다.

메달 모이는 모임에는 49년 약학과 졸업하신 안지수동문과 62년 사회학과 출신 김명자 동문, 65년 수학과 출신 유청자 동문등이 참석하여 더욱 이화 전통의 맥락을 느끼고 있습니다.

함혜란(불문 63) 동문은 한국학교 협의회 이사이자 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고, 김원자(의대 66) 동문은 개업의 생활 30년을 축하했습니다. 최진자(성악 86) 동문은 뉴튼 고등학교에서 자선 공연을 열었고, 허선(화학 01) 동문은 하버드 의대 교수로, 김경애(의학 70) 동문은 재활의학과, 장경이(의학 72) 동문은 소아과, 김문령(의학 75)동문은 내과의로, 임나정(법학 64)동문은 심리상담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고마운 동문들

배한원 동문(도서관 91)은 몬테소리 유치원과 한국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바쁜 가운데 연합 회보 편집을 맡아 수고하였습니다. 같은 과 동기인 김연아 동문은 윤문편집으로, 조진숙 동문(심유예술 94)은 표지 디자인을 맡아서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이혜원(약학 70) 동문댁에 모인 보스턴 동문들

동북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지회

유용희(국제사무 80)



클리블랜드 지회는 1974년에 처음 설립한 이래로 현재 약 60여명의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이화 만남”으로 동창 회원들이 모여 서로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동문들의 경조사를 도우며 동문들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만남에는 이화의 자매 학교인 Baldwin Wallace대학에 이화여대에서 교환 학생으로 와 있는 홍다솜(정치외교 07입학), 임하나(영어영문 08입학) 두학생이 참여하여 지금의 ‘변화된 이화’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또 대선배님들께서는 지난 ‘옛날 이화’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서로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3월에는 클리블랜드 미술관에서 특별전 “The Lure of Painted Poetry: Japanese and Korean Art”의 Opening Special Lecture로 한국인 Curator 선승혜씨께서 진행하시는 강의에 참석하였으며, 4월에는 김정진 동문님께서 김영례 동문이 준비한 “궁정심리학”에 관한 주제로 함께 토의하며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5월에는 이화만남의 대표적인 행사인 클리블랜드 한인 경로 잔치로 한인 노인들이 모여 사시는 Asian Evergreen 아파트를 방문하여 준비해간 오찬을 나누며 즐거운 오락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에는 Baldwin Wallace College에 교환 학생으로 온 이화 대학생들을 방문하여 오찬과 함께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후반기 일정으로는 Cleveland Museum 관람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가꾸기 위한 Active Iso-Stretch Exercise 강습이 있고 특별히 가을에는 Apple Picking을 하면서 아름다운 Cleveland를 만끽할 수 있는 Program을 마련하였고 연말에는 부부동반 연례만찬과 총회 및 임원 교제가 있습니다.

동문 소식으로는 김정진 동문(의학 72)께서 이화여고 북

미주 동창회 회장으로 선출되시어 클리블랜드에서 8월에 125주년 창립 기념의 큰 행사를 주관하시게 됩니다. 박영미 동문(의학 96)께서는 학업을 마치고 모교인 이화 여자 대학에 의과대학 분자 의학과 조교수로 임명되어 귀국하셨고, 노승보 동문(생활미술 85)께서는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셔서 이화 만남 회원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아리조나 지회

조한숙(전산 89)



아리조나 지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전에 모이며 보통 10-15명의 동문들이 참여합니다. 북쪽(Scottsdale)과 남쪽(Chandler)이 번갈아 가며 각각의 동문택에서 pot lock 파티를 엽니다. 선후배 사이에 대화가 끊이지 않아서 회장이 종종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답니다. 주로 젊은층이 모였는데 요사이는 따뜻한 곳을 찾아 내려오신 선배님들 때문에 모임에 더욱 활기가 있습니다. 멀리 투산에서 매달 참석하는 동문도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모처럼 이화 사위들까지 합세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3년 작은 규모로 시작된 이 모임은 처음에는 두달에 한번씩 모였습니다. Boston에서 이사는 이명미 회원의 발의로 시작되었으며 친히 Phoenix를 방문해 주신 Boston지회의 김정애 동문의 노력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Boston의 조수현 동문, 샌프란시스코의 Vivian Kang 동문, 휴스턴의 유미화 동문의 격려가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이명미, 김선미, 김은미, 그리고 조남숙 회장으로 이어지는 임원들의 수고로 꾸준히 더욱 신나고 활기찬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모임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큰 포부를 품은 큰 모임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신시내티 지회

김영채(영문 59)



장지현

2월 14-20일: University of Cincinnati 음악대학 주최로 공연된 '피가로의 결혼' 에서 주역 Susanna역으로 우리 지회 장지현 (성악 2006) 동문이 출연하였습니다. 장지현 동문은 졸업 후 피바디 음대와 클리브랜드 음대에서 각각 석사와 연주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

3월 11일 정기 모임: 작가 이민아 교수님을 모시고 출판하신 '아줌마 X' 에 대해 말씀을 듣고 참석하신 동문들께서는 책 한권씩을 선물받으셨습니다.

지회 지부에서는 금년에도 동창회비를 서울 총동창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10월 말 보스턴에서 있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참석을 위한 논의도 하였습니다.



센루이스 지회

양혜자(교심 74)



센루이스 지회에서는 매달 친목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 파티를 위한 레스토랑에서 부부동반으로 가졌습니다.

새 회장으로 정선주, 정홍순 회장을 이어 양혜자(교심 74) 회장이 결정되었습니다.

동북 펜실바니아 지회

김혜숙(영문 68)

펜실바니아의 동북부에는 Scranton, Wilkes-Barre, Hazleton, Bloomsburg 지역의 동창들이 봄, 가을, 매년 2회 씩 부부 동반으로 만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모금을 하여 이대 도서관 건립 기금에도 보탬으며 이화 국제재단에 매년 모금하여 보냅니다.

이 지역 재향 군인회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식에도 참석하고 지역 사회를 위하여 헌금하며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캔자스 지회

강명숙(제약 74)



강명숙

안순태 전 회장이 본교 교수로 임용되어 지난 5월 강명숙 (제약 74) 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지회 회칙과 주소록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EWHA 2011

지회/도시

덴버 지회

정재연(영문 68)

1. 가을 단합대회 겸 야유회

2010년9월 25일(토) Vail에서 동문회 단합대회 겸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이 날 총 10명의 동문들이 아침 일찍 미니버스를 타고 Vail로 출발하여, 아름다운 단풍구경과 맛있는 점심을 나누며 단합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강경순, 임은혁, 임우영, 정영옥, 방효주, 김정자, 최미세, 정재연, 방희정, 장금자등문

2. 콜로라도주 한인 노인회 돕기

덴버지회는 콜로라도주 교민사회에 이바지하는 동문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1년 1월에는 콜로라도주 한인 노인회 차량마련기금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북텍사스 지회

이숙재(무용 85)

북텍사스 지회에서는 2010년 연말동창파티를 성황리에 마치고 2011년 초에 열린 총회에서 이숙재(무용 85)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휴스턴 지회

김성혜(도예 84)

2010년 12월에는 Golf Club House에서 연말 만찬을 가졌습니다. 22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게임도 하고 선물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1년1월에는 홍나미(작곡 84)동창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각자 준비한 샐러드 재료들이 만든 훌륭한 샐러드 부페로 점심식사를 즐기고 '선배라면' 모금에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고 다음달 구정맞이 노인회 떡국대접을 위한 의논을 하였습니다.



2월에는 휴스턴 한인 노인회관에서 구정맞이 떡국대접을 하였습니다. 많은 동창들이 고향을 떠올리는 반찬을 직접 만들고 떡과 과일 등도 준비하여 노인들께 대접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120명의 노인분들이 참석하여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정맞이 휴스턴 노인대잔치

3월에는 이탈리아 식당 BRIO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5월 24일경 모임을 갖고 장학금 전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지회

강유순(약학 69)



강유순

5월 21일 열린 총회에서 강유순 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밴쿠버지회는 2012년 총회를 책임지게 될 호스트임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에드먼튼 지회

윤애진(특별교육 78)



윤애진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캐나다 에드먼튼 지회는 총 35명의 동문이 있으며 일년에 3, 4번의 모임을 통해 동문간 우애를 돈독히 합니다. 2011년도 새로운 회장으로는 윤애진 동문이 선출되었습니다.

올랜도 지회

김광혜(불문 63)



김광혜

2011년 1월 차기 회장으로 김광혜(불문 63)동문이 선출되었습니다.

2011년 4월 Holy Land Experience에서 모인 일곱명의 동문은 Passion Play 를 함께 관람하면서 우의를 다졌습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랜드 지회는 총동창회와 모교에 금일봉을 전달합니다. 지난 5월 김광해 회장은 딸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가족 전원이 모교 125주년 기념식에 들렀다고 전했습니다.

오타와 지회

차정자(수학 67)

3월 23일 한식당 고궁에서 정기 모임 오찬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정기 총회 날짜와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3월 26일 캐나다 문명 박물관에서 박성숙 동문(권현악 87)이 악장으로 있는 오타와 심포니 앙상블 오케스트라의 첫 공연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모금운동을 위한 정식 만찬을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고 동문회에서 준비한 후원금도 전달하였습니다. 박동문은 한인문화의 날 대행사에서 예술감독을 역임한바 있습니다.

4월 15일 토론토에서 이연숙 동문 부친상을 당하여, 차
정자 회장이 조문하고 부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6월 5일 오타와 지회 제7회 총회를 이연숙 동문댁에서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풍성한 만찬을 준비/초대하여 주신 이 동문께 감사 드리고, 각 가정에서 준비한 다양한 후식과 포도주도 즐겼습니다. 총회는 기도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교가를 애창함으로 아름답게 끝났고, 이 날 선출된 새 회장단은 회장/이연숙 동문(간호 72입학), 부회장/한은신 동문(수학 82)입니다.

아래 사진은 총회가 끝난 후, 참석한 동문들의 기쁜 모습이며 여기에 한분한분을 소개합니다.



툇줄(원쪽부터): 박우정(약학 87), 최영아(도서관 85), 정혜경(교육
 대학원 90), 백경자(교육학 90), 한은신(수학 82), 박은경(장식미술
 85), 이은경(장식미술 89), 임성민(경영 02), 김윤형(사학 02), 박성
 석(관현악 87), 오수진(화강 93); 앞줄(왼쪽부터): 이연숙(간호 72),
 차정자(수학 67), 엄경자(약학 67), 장소영(사회사범75)

2011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35

북미주 지회장 명단

연락처는 Ewha.Boston@gmail.com (508) 785-2641 로 연락하세요.

지회명	지회장	전공	졸업	지회명	지회장	전공	졸업
AK Alaska	김영혜	영문	1977	NY Buffalo	조재길	약학	1961
AZ Arizona	조한숙	전산	1989	NY New York	유덕향	약학	1971
CA N California	조성연	사회	1990	OH Cincinnati	김영채	영문	1959
CA San Diego	조효은	교육	1971	OH Cleveland	유용희	비서	1980
CA S California	오명애	장미	1974	OR Portland	김민자	생미	1964
CO Denver	정재연	영문	1968	PA Allentown	김여음	영문	1954
FL Orlando	김광혜	불문	1963	PA NorthEast	김혜숙	영문	1968
GA Atlanta	조성숙	가정	1964	PA Philadelphia	박영진	과학교육	1989
HI Hawaii	장은혜	동양화	1979	RI Rhode Island	이길자	의학	1966
IL Chicago	구은서	보간	1973	TN Nashville	김애경	의학	1975
KS Kansas	강명숙	제약	1974	TX Houston	김성혜	도예	1984
MA Boston	조수현	수학	1976	TX Nothem	이숙재	무용/석사	1985/87
MD Baltimore	노선희	피아노	1972	WA DC	이영주	간호	1972
MI Detroit	오미령	식영	1977	WA Seattle	이정열	조소	2011
MI Lansing	조미영	동양화	1985	CAN Edmonton	윤애진	특교/석사	1978/86
MN Minnesota	이은영	가정관리	1971	CAN Montreal	이채화	무용	1976
MO ST Louis	양혜자	교심/석사	1974/76	CAN Ottawa	차정자	수학/석사	1967/69
NC N Carolina	전성림	생물	1968	CAN Toronto	공영희	생미	1971
NV Las Vegas	권영애	의학	1964	CAN Vancouver	강유순	약학	1969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가볼만한 보스턴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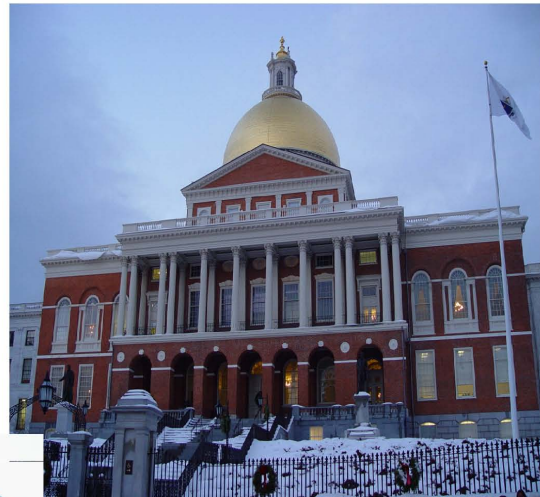
• 존 하버드 동상



• M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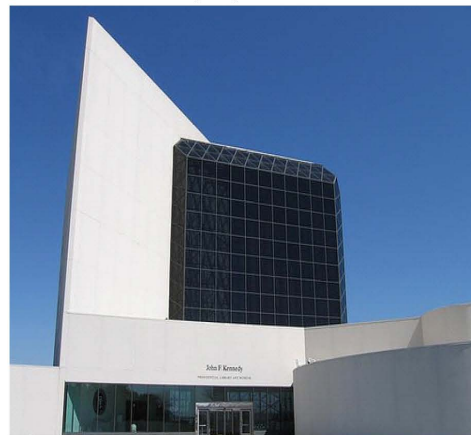
• 회니어 홀과 사무에 아담스



• 주 의사당



• 퀸시 마켓



• 케네디 도서관

2011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37



EWhA 2011

초청 강사 소개

하버드 법대 석지영 교수



석지영

석 교수는 6살 미국으로 이민오기 전부터 시작했던 발레로 세계적인 미국 아메리칸 발레학교에 입학했지만 일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발레를 그만 두고 그후 3년 만에 피아노로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하였고 예일대 재학 중 만나 결혼한 남편마저 하버드 법대 종신 교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석지영(Jeannie Suk)교수는 2006년 조교수로 시작해 4년 만에 Faculty 투표로 종신 정교수에 임명되었다. 석교수는 하버드 법대 사상 최초의 동양계 여성 석좌교수이다.

예일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마셜 장학생으로 선정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비교 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 법대에 진학, 졸업 후에는 뉴욕에서 검사로 일하다 하버드 법대 조교수로 임명됐다. 어머니는 약대를 70년에 졸업한 뉴욕의 최성남 동문이다.

석교수는 'At Home In The Law' 라는 책에서 가부장적인 미국의 법 제도를 다뤘다. '가정을 바라보는 법적 시각은 여전히 남자 위주이고 여자들은 소외돼 있다고 지적하며 가정 폭력같은 문제도 이 때문에 생긴다' 는 내용이다. 석 교수의 저서는 지난해 미국 법사회협회로부터 '올해 최고의 법률 서적' 에 선정됐다. 지난해 스탠퍼드대 교수와 함께 썼던 논문에서는 '영화나 음악, 미술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데 패션은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 를 지적해서 화제가 되었다. 그녀의 논문으로 시작된 논의 덕에 올해 미국 연방의회에서 '패션 저작권법' 에 대한 법안이 상정됐다.

석교수는 "하버드는 가장 흥미진진하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곳" 이라면서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수투표에서 종신교수로 통과시켜 준 것은 내게 큰 행운" 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로부터 성공한 여교수의 강의를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들어왔다" 면서 "앞으로 더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2박3일
특별여행

- 날짜: 10월 25~27일, 화~목
- 장소: 뉴햄프셔주의 White Mountain 과 메인주의 아카디아 국립공원
- 비용: \$400/1인기준 (2인1실, 숙박포함)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스케줄

Schedule Ewha Boston 2011

• Oct 27 (Thursday)

- 3:00 PM 호텔 등록 시작
- 8:00~10:00 PM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회
- 9:00~12:00 PM 친교의 시간

• OCT 28 (Friday)

- 7:00~8:30 AM 아침 식사
- 8:30~9:30 AM 동호인반: 합창반, 컴퓨터반, 사진반
- 9:45~4:15 PM 역사 투어: Mayflower II, Plymouth Plantation, Concord & Lexington
- 4:30~5:30 PM 세미나 1 (동문 이소영 변호사)
- 6:30~11:00 PM **총장님과의 단편**, 지회 소개, 이화인 가요제

• OCT 29 (Saturday)

- 7:00~8:30 AM 아침 식사
- 8:30~9:30 AM 세미나2(성경, 재정, 성악공부/대학진학)
- 9:30~11:30 AM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 11:30~5:00 PM 보스턴 투어: Freedom Trail, Boston Public Garden, State House, Faneuil Hall, Quincy Market, Boston Harbor, Harvard, MIT
- 6:00~11:30 PM 연례 **대만찬 Grand Banquet**, Music & 지회 Talent Show

• OCT 30 (Sunday)

- 7:00~8:30 AM 아침 식사
- 8:30~9:30 AM 예배
- 9:30 AM 총장님과의 대화
- 12:00~2:00 PM Concord Walden Pond 산책

• 문의: 조수현 회장 (수학 76)

508-785-2641, 508-333-1757
이문희 준비위원장 (작곡 77) 978-390-1552
유인성 회계 (의직 75) 781-789-9868
오명애 이사장 (장미 74) 714-723-1616
이메일 : ewha.boston@gmail.com

• 연합회 임원

- 회장: 조수현 (수학 76 보스턴)
- 부회장: 강유순 (약학 69 맨큐버)
- 정보 관리: 백신자 (영문 64 시애틀)
- 서기: 정선진 (법학 93 보스턴)
- 지회 연합회 웹사이트: ewhain-na.com

EWHA 2011 Registration Form 참가 신청서

Name	한글			
	English			
졸업년도		졸업학과	동창회지명	
Address	City	State	Zip	
	Street			
Phone	Home		Cell	
	Work		Fax	
Email				
동행자수		동행자 이름		
Date	참가회비 내역		비용	수
Friday Oct. 28	등록비		\$ 20	
	28(금), 29(토) 입장료 점심포함 2Day Boston Tour Package		\$150	
	Dinner with President		\$100	
Saturday Oct. 29	Grand Banquet		\$100	
Total				

- 참가 신청비는 개인 수표나 Money order로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 자세한 문의 : Ewha.Boston@gmail.com, 508. 785. 2641

* 보내실 곳 : EWHA Boston 2011 c/o Insung Kim
19 Partridge Rd, Lexington, MA 02420

* Payable to : EWHA Boston 2011

• 8월 15일 이전 등록시
등록비 면제
• 9월 29일 이후에는
환불 불가

2011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 날짜 : 2011년 10월 27일(목요일)~10월 30일(일요일)

• 장소 : Westin Waltham Boston Hotel,
70 Third Avenue, Waltham, MA 02451
Tel 781.290.5665

- **호텔 예약** : <http://www.starwoodmeeting.com/Book/ewha> 에서, 또는 1-800-937-8461으로 하셔서 code EWHA 를 주셔도 됩니다. 하루 \$119+ tax=\$133 이며 10/24-11/2 동안 같은 값으로 머무실 수 있습니다. 4인 1실 가능.
- **보스턴 한인콜택시**: 774. 285. 9466 (편도 \$60)

• 발행인: 조수현 • 편집인: 배한원, 김정애, 이문희 • 표지디자인: 조진숙 • 편집 디자인: 김양희
Ewhain-na.com / ewha.boston@gmail.com

2011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39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22 Draper Road, Dover, MA 02030
Soohun Cho Song, President
Ewhain-na.com | ewha.boston@gmail.com

PSN STD
U.S. POSTAGE
PAID
BOSTON, MA
Permit # 990



이대여성암전문병원
EMHA WOMANS UNIVERSITY CANCER CENTER FOR WOMEN

여성의 몸과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병원

최상의 치료 경험을 선사하는 병원
세계 의료의 지평을 넓히는 병원
믿음을 주는 암정복의 희망지기가 되겠습니다.

이화여대 의료원암 전문센터 | 이대 여성암 전문 병원장 박남선



158-7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1-1 별관 4층 대표전화(ARS) 02-2650-5990 ~ 5993 전화예약 02-2650-5114

임나경 심리 상담소

Nakyung Im, LICSW, LADCI, IABMCP

Licensed Psychotherapist

Most Insurances accepted: PPO HMO Medicare Medicaid



- MARRIAGE/RELATIONSHIP
- FORENSIC PSYCHOTHERAPY
- ANXIETY/DEPRESSION
- CHRISTIAN THERAPY
- SUBSTANCE ABUSE
- CAREER COUNSELING(EAP)
- PTSD

308A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6
22 Spear Street, Quincy, MA 02169

T: 617-738-9622

F: 617-738-9623 E: nakyungim1@hotmail.com

백승원 위장내과

김단옥 (77 영문) 동문 부군



| 북부 201-302-9774

ENGLEWOOD OFFICE 및
NORTH JERSEY SURGERY CENTER

| 중부 732-744-9090

EDISON OFFICE 및
OAK TREE SURGERY CENTER

소화기 내과만 전문 진료합니다

2011 BOSTON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회장 조수현 : 수학 76



EWHA BOSTON 2011

October 27 - 30, 2011

The Westin Waltham Boston Hotel

Last modified : 2011.09.18 <02:02>